

제6장 웅천읍(熊川邑)

본래 남포군(藍浦郡) 지역으로, 웅천(熊川, 곰내)의 이름을 따라 웅천면(熊川面)이라 하여 관동(冠洞), 당현(堂峴), 간입(看入), 독산(獨山), 소황(小篁), 대황(大篁), 광암(廣岩), 주교(舟橋), 대청(大菁), 소청(小菁), 장기(場基), 봉오(烽伍), 화망(花望), 장좌(長佐), 하구(下九), 노전(蘆田), 사근(沙近), 용와(龍臥), 대천(大川)의 19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고읍면(古邑面)의 대천(大川) 방축(防築) 내성(內城) 외성(外城) 상부(上富) 하부(下富) 수안(水岸) 평리(坪里)의 8개 동리와 신안면(新安面)의 두명리(杜鳴里), 습의면(習衣面)의 벽동(碧洞)과 심전면(深田面)의 동막리(東幕里)를 병합하여 다시 웅천면(熊川面)이라 해서 보령군에 편입되어 관당(冠堂), 독산(獨山), 소황(小篁), 황교(篁橋), 죽청(竹淸), 구룡(九龍), 노천(蘆川), 두룡(杜龍), 대천(大川), 대창(大昌), 성동(城洞), 수부(水芙), 평리(坪里)의 13개 리로 개편 관할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2일자로 웅천읍이 되었다.

- 웅천면(熊川面) : 옛 남포현의 서쪽에 있던 면. 현재 웅천읍 구룡리, 관당리, 죽청리, 독산리, 소황리, 황교리, 노천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 고읍면(古邑面) : 옛 남포현 남쪽의 면. 현재 웅천읍 대창리, 성동리, 수부리, 평리지역이다. <1911, 朝鮮地誌資料>

1. 관당리(冠堂里)

본래 藍浦郡 熊川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관동(冠洞), 당현리(堂峴里), 간입리(看入里)를 병합하여 관동 당현의 이름을 따서 관당리라 하여 보령군 웅천면에 편입하였다.

- 간드리 : 관당리의 남쪽 마을. 예부터 바다와 관련이 많던 마을이다. 윗간드리와

아랫간드리로 나누어진다.

- 간드리당재 : 간드리의 당재는 1940년대까지 이루어졌다. 당산의 돌이 있는 곳에서 지냈는데 제일은 정월 열나흘 밤, 즉 보름날 새벽이었다. 걸립을 하여 재물을 장만 하였고 돼지머리를 사용하였다.
- 간입리(看入里) : 간드리의 한자 표기.
- 갓굴 : 관당리 북쪽의 중심마을. 유수물재를 통하여 유수물과 통하고 영진고개를 통하여 남포면 월전리 영진과 통한다.
- 갓굴앞들 : 관당리 북쪽 갓굴 앞에 있는 들.
- 관동(冠洞) : 갓굴의 한자 표기. 관당리 2구(관동, 무창) 중 1구.
- 구수굴 : 관당리의 북쪽 주상굴과 음고개 사이에 있다. 집이 1가구 있다.
- 평말림 : 아랫간드리 덩수박굴 서북쪽에 있는 낮은 산. 높이 42.0m.
- 끝봉 : 석대의 남쪽 봉우리.
- 너멍굴 : 진등과 안덕메 사이에 있는 마을. 근래 소항리 큰황굴에 있던 무송 윤 씨의 사우(문헌사)를 옮겨 세웠다.
- 넘은양알 : 원양알 동쪽 골짜기 마을.
- 담배밭 : 석대의 첫봉과 둘째봉 사이에 있는 평평한 평지로 과거에 담배밭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담배밭밑 : 석대 담배밭 동남쪽에 있는 해변.
- 당산 : 무창포 포구 서쪽에 있는 작은 산.
- 당산 : 아랫간드리 북쪽에 있는 낮은 산을 말한다. 높이 22.0m.
- 당산 : 윗간드리와 죽청리 큰봉오재 사이에 있는 높이 65.0m의 산. 죽청리 봉오재의 당산이다.
- 당현(堂峴) : 당재의 한자 표기.
- 당현리(堂峴里, 무청포) : 무창포의 옛 한자 표기. <1911, 朝鮮地誌資料>
- 당현포(堂峴浦, 무청포) : 무창포. 당재의 이름을 따서 표기. <1911, 朝鮮地誌資料>
- 대뜰 : 갓굴 앞에 흐르던 내로 천정천화 되어 주변의 논바닥보다 하천바닥이 더 높았다.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 덕메 : 관당리의 북동쪽 할미재 서쪽에 있는 마을. 안덕메와 밧덕메로 나누어진다.
- 덕메앞들 : 관당리 북동쪽 덕메 마을 앞 들.
- 덕산곡(德山谷) : 덕산봉의 한자 표기.
- 덕산봉 : 태봉재 서북쪽 골짜기.

- 덕산봉리(德山峰里) : 덕산봉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덩수박굴 : 윗간드리의 서쪽에 있는 마을. 벼락재의 바로 밑이며 아랫간드리에 속한다.
- 두멍바위 : 석대의 동북쪽 끝에 있는 큰 바위. 낚시 장소로 많이 이용된다.
- 둘재봉 : 석대의 가운데 봉우리이다.
- 드렁미골 : 부엉배고랑의 북쪽 골짜기. 논으로 이용되고 입구는 해수욕장과 만난다.
- 말밭 : 윗마실골과 삼정골 사이에 있는 안산의 북쪽 끝.
- 목 : 목여와 석대섬 사이에 나타나는 바위 너덜. 사리 때만 노출된다. 이곳에는 많은 어패류가 생산되기 때문에 사리 때면 주민의 출입이 많다.
- 목독살 : 간드리 앞 목여에 있던 독살.
- 목여 : 아랫간드리 앞에 있는 바위 너덜. 이 바위 너덜과 연결되어 석대섬으로 통하는 목이 갈라진다.
- 무창(武昌) : 무챙이의 한자 표기. 관당리 2구(관동, 무창) 중 1구.
- 무창포(武昌浦) : 관당리의 포구마을과 해수욕장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곳에는 조선 시대에 해창이 있었고 일제시대에 방파제를 막아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주민들은 무챙이라고 부른다.
- 무챙이당제 : 1950년대까지 포구 옆 당산에서 이루어졌다. 제일은 7월 7일이었다.
- 무챙이 : 무창포의 포구지역을 부르던 순수 우리말 이름. 과거에는 무챙이로만 불렀으나 근래 무창포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 무청(蕪菁) : 조선시대 말 무챙이의 한자식 표기.
- 바깥목 : 목여에서 목으로 통하는 길. 안목보다는 높다.
- 밧덕메 : 덕메 서쪽 마을이다. 음고개의 남쪽에 있다.
- 벼락재 : 북문재의 다른 이름. 터진목이라고도 한다. 갯굴 마을에서는 북문재를 벼락재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 벼락재 : 윗간드리의 북쪽에 있는 고개. 무창포와 웅천읍 소재지, 대천으로 통하며 무창포 쪽으로 경사가 심하다. 벼락은 경사가 심한 벼랑을 의미한다.
- 병풍바위 : 석대 끝봉 뒤쪽에 있는 병풍같은 바위.
- 부엉배고랑 : 관당리 서쪽 독산리와의 경계에 있다. 봉산재의 서쪽 골짜기이다.
- 북문재 : 관당리 양알에서 죽청리 점으로 통하는 고개. 옛 토진곶목장성의 북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북적끝쪽뿌리 : 아랫간드리 당산의 서쪽 끝이다. 바다와 접한다.
- 사자굴 : 관당리의 북쪽 은상굴과 갯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산도래 : 아랫간드리와 무챙이 사이의 언덕 위에 있는 마을. 높이는 15~20m이며 평평하여 거의 밭으로 개간되었다.
- 산제당 : 유수물재의 북쪽에 있는 봉우리(71.3m) 이곳에는 40여 년 전까지 초가 1칸의 산제당이 있었다. 제일은 정월 열나흘 밤, 즉 15일 새벽이었다.
- 새뜸 : 드렁미골과 홀미고개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산봉우리.
- 샘골 : 관당리의 남쪽 골짜기 마을. 아랫간드리와 윗간드리로 구분된다.
- 서낭당이 : 관당리의 북쪽 영전고개 꼭대기에 있다. 갓골 사람들이 이용하던 서낭당이이다.
- 석대도(石臺島) : 석대의 한자 표기.
- 석대도 : 웅천읍 관당리에 있는 섬이다. 마을에서는 보통 ‘석대’라고 부른다. 사리 때에는 무창포해수욕장과 연결되는데 그 통로는(목) 조류가 빠르고, 바위가 많아 굴, 조개, 게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무창포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여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석대도 안에는 평지와 샘이 있으며, 4가구까지 살았는데 1970년대 이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다.
- 솔뜸 : 무챙이 윗말과 당재 사이에 있는 모래 언덕으로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송날 : 덕산봉과 당산재골 사이에 뺏어나온 작은 산줄기.
- 송어바위 : 무챙이 당산의 북쪽에 있는 바위. 만조가 되어도 물에 잠기지 않는 바위로 만조 때 송어 낚시하기에 알맞은 바위이다. 주변을 모두 매립하여 없어졌다.
- 심교곡(深橋谷) : 깊은들의 한자 표기.
- 아랫간드리 : 간드리의 서쪽 마을.
- 아랫말 : 무챙이의 남쪽 마을. 항구시설이 만들어져 수산업협동조합, 창고, 기름 판매소 등이 들어서 있는 마을이다.
- 안덕메 : 관당리의 북동쪽 밭덕메와 너명굴 사이에 있는 마을.
- 안목 : 목과 석대섬 사이에 사리 때 노출되는 길. 바깥목보다 수심이 깊다.
- 안산 : 윗마실골과 삼정굴 사이에 있는 산.
- 알변 : 원양알과 넘은양알 사이에 있는 달걀 같은 봉우리.
- 애덜독살 : 유수물에 있었던 독살. 큰독살의 북쪽에 있었다.
- 양알 : 삼정굴과 진등 사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
- 양화(陽花) : 양알의 한자 표기.
- 영전고개 : 관당리의 북쪽 갓골에서 남포면 월전리 영전으로 통하는 고개.

- 왕재 : 무챙이 북쪽에 있던 마을. 마을은 없어지고 수산종묘배양장이 들어서 있다.
- 용구멍 : 석대 서남쪽에 있는 큰 구멍. 일종의 해식 동굴이다.
- 우럭바위 : 바깥목 입구의 남쪽에 있는 큰 바위. 우럭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원양알 : 삼정굴 동쪽 골짜기.
- 윗간드리 : 간드리의 동쪽 마을.
- 윗마실굴 : 벼락재 밑에서 무챙이로 향한 골짜기.
- 윗말 : 무챙이의 북쪽 마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포구 취락이다.
- 유수물 : 당재 북쪽에 있는 해변을 말함. 대부분 바위 너덜로 되어있고 갯굴 너머에만 모래해변으로 되어있다. 이곳에는 독살이 3곳 있었다. 현재는 제방이 축조되고 양식장으로 이용된다.
- 유수물고랑 : 유수물에 있는 바다로 향한 골짜기로 논과 밭으로 이용된다.
- 유수물재 : 갯굴에서 유수물로 넘어가는 고개.
- 은산여 : 무창포 방과제 서북쪽에 있는 바위 너덜. 목이 깊어 큰 사리가 되어야 건너갈 수 있다. 최근 이곳에 방과제를 축조하였다.
- 은상굴 : 관당리의 북쪽 함박굴과 사자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음고개 : 관당리 북쪽 밭덕메에서 남포면 월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서낭당이 있다.
- 입죽도(立竹島) : 석대의 한자 표기.
- 장벌 : 해수욕장 모래밭, 즉 사빈을 부르는 이름.
- 주상굴 : 관당리 북쪽 지핀들과 구수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작은독살 : 유수물에 있던 독살. 큰독살의 남쪽에 있었다.
- 지핀들 : 관당리의 북쪽 갯굴과 주상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창뜸 : 무챙이의 서남쪽 마을. 벼락재에서 무챙이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로, 옛날 세곡을 한양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해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창재빠기 : 아랫간드리에서 창뜸으로 넘어가는 고개.
- 첫봉 : 석대의 북쪽 봉우리이다.
- 큰독살 : 유수물에 있던 독살. 작은독살의 북쪽에 있었다.
- 태봉재 : 독산리 죽청리 관당리의 경계가 되는 산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봉화대가 있었다고 한다.
- 터진목 : 북문재의 다른이름.
- 할미녀 : 목 북쪽에 있는 바위 너덜. 물이 많이 빠지는 큰 사리 때만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날이 1년 중 몇 일 되지 않는다.

- 할미재 : 관당리 구룡리 남포면 월전리의 경계가 되는 산. 높이 179.9m이며 꼭대기에 삼각점이 있다. 고뿌래 마을에서는 신안재라고 부른다.
- 함박굴 : 관당리의 북쪽 당재와 은상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해수욕장 : 관당리 서남쪽 해안. 1928년 경남철도 회사가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였다 (신문기사에는 1931년). 일제시대에는 대천해수욕장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였던 곳이다. 근래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졌다.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홀미재 : 아랫간드리와 독산리 석갈메 사이에 있는 고개.
- 홀미재고랑 : 홀미재 북쪽 골짜기.



무창포항(2004)



무창포해수욕장(2004)

2. 구룡리(九龍里)

본래 남포군 웅천면(熊川面) 지역으로서, 아홉 용이 구슬을 다투는 형국(九龍爭鬪形)이라고 하여 구룡(九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좌동(長佐洞), 하구리(下九里), 화망리(花望里) 일부를 병합하여 구룡리라고 하였다.

- 가나무재 : 잣티에서 구룡리 고뿌래로 넘어가는 고개. 굴고개의 북쪽에 있다.
- 가는골 : 독고개 동남쪽의 골짜기.
- 가운데재 : 고뿌래 증굴에서 장자울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 각시바위 : 신안재 꼭대기에 있는 바위.
- 감나무굴 : 장자울 남쪽의 골짜기 마을. 남포 백 씨가 세거한다.
- 감나무굴재 : 양청말과 감나무굴 사이의 고개.
- 강당 : 개굴고랑의 서북쪽 집이 1채 있는 곳이다. 오래된 감나무가 있다.

- 개굴고랑 : 큰말과 비하재 사이의 들로 북쪽에 소류지가 있다.
- 개터 : 굴고개와 예전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논과 밭으로 개간되었으나 물이 없어 가뭄의 피해가 크던 곳이다. 현재는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다.
- 고뿌래 : 구룡리의 북쪽 마을. 안말, 새암굴, 큰말, 비하재, 굴고개, 증굴을 포함한다.
- 고뿌래재 : 용굴에서 고뿌래로 넘어가는 고개.
- 고지봉말랭이 : 구룡 남쪽에 있는 골짜기 들.
- 구레들 : 고뿌래 앞 들.
- 구룡(九龍) : 마차울의 북쪽 용굴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 구룡1리 : 1반 안말, 2반 큰말, 3반 바아재, 4반 굴고개.
- 구룡2리 : 1반 육골, 2반 장자울, 3반 마차울, 4반 뒷고개.
- 구룡들 : 구룡 남쪽에 있는 골짜기 들.
- 구룡목고랑 : 증굴에서 용굴, 구룡으로 통하는 골짜기.
- 구룡목재 : 증굴에서 용굴, 구룡으로 통하는 고개. 꼭대기에 서낭당이 있다.
- 구룡산(九龍山) : 마차울 마을 뒷산. 남포현의 진산인 구룡산은 현 잔미산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911, 朝鮮地誌資料>
- 구룡재 : 용굴과 구룡 사이에 있는 고개. 용굴에서 부르는 이름.
- 구청거리 : 고뿌래 새암굴과 안말 사이에 있는 낮은 능선의 끝부분이다. 일제시대 까지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 국구개 : 대천리와 구룡리를 연결하는 고개. 고개 위의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굴뚝 : 큰말의 북쪽 골짜기.
- 금구데기 : 큰말과 새암굴에서 신안재로 오르는 길 옆에 있다. 해발 125m 부근에 있다.
- 나무다리 : 굴고개와 비하재 사이에 있는 지방도가 통하는 다리이다. 과거에는 이곳에 나무로 다리를 놓았고 그 위로 자동차가 통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포장도로가 지난다.
- 너덜고개 : 굴고개에서 장자울로 통하는 고개. 시멘트로 포장되었으며 정기 버스 노선이 있다.
- 느르재 : 시난재의 서쪽 끝에 있는 봉우리이다. 관당리에서는 할미재라 부르고 고뿌래에서는 보통 시난재라고 부른다.
- 담불백이 : 고뿌래 새암굴과 큰말 사이에 있는 언덕의 남쪽 끝. 그릇 파편과 조개 껍질이 쌓여 있었다. 주변에 오래된 묘가 있었으나 흔적이 없어졌다. 그곳에 있는 집을 말하기도 한다.

- 당산 : 마차울 위뜸의 바로 뒤에 있다. 지금도 이곳에서 7월 칠석날 제를 지낸다. 일제시대에 제를 지내지 않아서 호열자(콜레라)가 들어와 7~8명의 마을 젊은이가 죽었다고 한다. 그후로 계속해서 제를 지낸다. 산제를 지낸 뒤에 마을 안의 왕소나무에도 제를 지낸다.
- 당산재 : 고뿌래 비하재에서 두룡리 새터로 넘어가는 고개.
- 달월재 : 비하재에서 남포면 달월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는 남포면 달월 사람들이 응천장을 보기 위하여 많이 이용하였다.
- 도참문 : 장자울과 독고개 사이의 도로에서 양청말로 들어오는 반생이재의 남쪽 끝 부분.
- 도토매기재 : 고뿌래 증굴고랑에서 장자울, 양청말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 독고개 : 구룡리와 죽청리 사이의 고개. 고개 동쪽에 있는 마을을 칭하기도 함.
- 독고개재 : 양청말과 독고개 마을 사이의 고개.
- 독다리 : 고뿌래 큰말 입구에 놓여있던 다리. 큰 돌 두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 마을의 힘센 장정이 뿔뿔으로 메어왔다는 전설이 있다.
- 뒷재빠기 : 마차울 뒤쪽에서 감나무굴 쪽으로 통하는 고개.
- 드렁배미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땡그렁바위논 : 국구개 서남쪽에 있는 논. 경지정리되어 없어졌다.
- 마당배미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마서(磨敍) : 마차울의 한자 표기.
- 마장 : 국구개 서남쪽에 있는 평평한 지형. 논 밭으로 개간되었다.
- 마차울 : 구룡리의 서남쪽 양청말의 북서쪽 마을. 위뜸 아래뜸으로 나누어진다.
- 마차울샘 : 마차울 위뜸의 동쪽 산밑에 있는 샘.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온다. 과거에는 위뜸에서 모두 이용했다. 지금도 몇 집이 이용한다.
- 말바위 : 서낭당이 북쪽 산능선에 있던 바위로 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를 위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 매봉재 : 신안재의 동쪽, 비하재의 북쪽 봉우리이다.
- 무술재 : 마차울에서 죽청리 큰무술로 넘어가는 고개.
- 반생이재 : 장자울, 독고개로 통하는 도로에서 양청말로 들어오는 고개. 옛날 마마가 동네에 들어오면 짚으로 말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놓아 되돌려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반생이재라고 부른다고 한다.
- 벼름박산 : 고뿌래 증굴 앞산의 증굴쪽 사면. 경사가 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비하재 : 고뿌래의 동쪽에 있는 마을.
- 사닥다리 : 고뿌래 안말 앞에 있는 논. 사다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삼재 : 고뿌래 새암굴에서 큰말 굴뚝으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
- 상구리(上九里) : 구룡리 장자울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상정산 : 고뿌래 서남쪽 심바굴이 있는 산. 보통은 심바굴이라고 부른다.
- 새암굴 : 안말과 큰말 사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 마을 안에 좋은 샘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샘의 옆에는 수백년 묵은 배롱나무가 있어 샘의 역사를 말해 준다.
- 서낭댕이 : 고뿌래 비하재에서 두룡리 새터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성황당.
- 서낭댕이 : 구룡리 고뿌래와 죽청리 사이에 있는 성황당. 정자나무(느티나무) 아래에 돌무더기가 있었고 돌무더기 옆에는 팽나무도 있었다. 고뿌래 안말 사람들이 서낭제를 지냈다. 현재는 정자나무의 뒤쪽으로 도로가 나 있다.
- 서낭댕이 : 땄월재 꼭대기에 서낭댕이가 있다.
- 서낭댕이 : 증굴에서 용굴, 구룡으로 통하는 구룡목재 꼭대기에 있었는데 도로 확장 공사로 없어졌다.
- 서낭댕이고개 : 서낭댕이가 있는 고개. 죽청리와 구룡리의 경계가되는 이곳에 근래 석장승을 세웠으나 주민들이 위하지는 않는다. 장승은 원래 고뿌래 마을 앞 장승백이에 있었다. 이곳에는 예부터 주막이 있었으며 죽청리 관당리 사람들이 장에 오가다 쉬어가던 곳이다.
- 서당메산 : 양청말 동남쪽의 산기슭. 돼지 축사가 있다.
- 선적굴재 : 구룡에서 죽청리 선적굴로 넘어가는 고개.
- 섬배미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섯밭 : 고뿌래 비하재 마을 가운데에 있는 왕솔밭. 평지에 있는 솔밭으로 솔밭 서쪽에 있는 집의 풍수지리상 보호되는 것이다.
- 소리개배미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솟대배기 : 마차울 위뜸의 서쪽에 있는 밭을 부르는 이름. 과거에 솟대가 있었다고 한다.
- 솟대배기 : 장자울 북쪽의 집 3가구가 있는 마을이다. 옛날 과거에 합격하여 솟대를 세워 솟대배기라고 한다는 전설이 있다.
- 수랑논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고속도로 진입로가 되었다.
- 시계다랭이 : 국구개의 동쪽(대천리) 샘 밑에 있는 논으로 농사가 잘되면 그해 풍년이 들고 잘 안되면 흉년이 들어 미리 알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신안재 : 고뿌래 마을 뒷산. 산너머가 신안면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시묵굴 : 구룡목재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옥녀봉의 북쪽 골짜기이다.
- 심바굴 : 고뿌래 서남쪽 산 골짜기. 산의 동북쪽 부분을 모두 심바굴이라고 한다.
- 아랫굴고랑 : 증굴 남쪽에서 화락산으로 난 골짜기.
- 아래뜸 : 마차울의 아래쪽 마을.
- 안말 : 고뿌래의 안쪽, 서낭당이 동쪽 양지바른 마을. 장수 황 씨가 세거한다.
- 앞산 : 증굴 앞쪽에 있는 낮지만 경사가 급한 산. 장자울과의 경계가 된다.
- 양청말 : 감나무굴 남쪽의 마을. 남포 백 씨가 세거한다. 경주 김 씨 입향조의 묘가 있다.
- 옛마지기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영감재 : 마차울에서 작은무술로 넘어가는 고개.
- 예전산 : 고뿌래 굴고개와 비하재 사이에 있는 산. 남포 백 씨의 종중 소유이고 남포 백 씨의 묘들이 많다.
- 옥녀봉 : 장자울 서쪽 산 꼭대기.
- 왕소나무 : 마차울 위뜸의 북쪽에 있는 큰 소나무. 언제 심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두 그루가 있는데 둘레가 368cm, 320cm였고 수관의 폭은 25m나 되었다. 두 나무 모두 두 가지씩 벌어졌는데 작은 나무의 가지 하나가 부러졌다. 마을에서 왕소나무라 부르고 칠월 칠석날 제를 지낸다. 최근 하나가 죽었다.
- 왕솔밭 : 고뿌래 새암굴과 안말 사이에 있는 능선의 끝에 있는 수백 년 된 소나무의 숲. 장수 황 씨의 묘가 있어서 보호된 소나무 숲이다.
- 옥굴 : 개굴고랑의 북쪽 깊은 골짜기.
- 윗뜸 : 마차울의 위쪽 마을.
- 유투쟁이 : 독고개 마을 북쪽의 동으로 뻗은 골짜기.
- 옥굴 : 용굴의 다른 이름.
- 옥굴고랑 : 용굴에서 장자울로 뻗은 골짜기.
- 용굴 : 장자울의 북쪽 끝에 있는 작은 마을.
- 용굴재 : 고뿌래 서낭당에서 용굴로 넘어가는 고개.
- 용굴재 : 고뿌래 덕굴에서 용굴로 넘어가는 고개.
- 용굴재 : 용굴과 구룡 사이에 있는 고개. 구룡에서 부르는 이름.
- 으승산 : 고뿌래 증굴 앞산의 남쪽 가라티 뒷산을 말함. 가라티에서는 으등산이라고 부른다.
- 은배미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작은새암굴고랑 : 고뿌래 새암굴의 서쪽 골짜기.
- 작은재 : 고뿌래 새암굴 남쪽의 논다랭이를 말한다. 이곳에서 왕솔밭으로 난 낮은 언덕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진다.
- 잠나무굴재 : 용굴에서 잠나무굴로 넘어가는 고개.
- 장군바위 : 마차울 위뜸 왕소나무의 동북쪽에 있다.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마을 앞 성에서 싸우던 장수가 쉬었던 바위라는 전설이 있다.
- 장마(長磨) : 구룡리 2구(화망, 장마) 중 1구. 마차울과 장자울지역이다.
- 장승백이 : 고뿌래 큰말의 입구에 있다. 예전에는 비하재 당산재에서 장승백이를 거쳐 작은재로 통하는 길에 통행인이 많았다. 이 길과 마을 앞에서 들어오는 길이 만나는 지점에 목장승 6개가 나란히 있었고 장승제를 지냈다고 한다. 1940년대에 없어졌다고 한다.
- 장자울 : 솟대배기와 감나무굴 사이의 큰 마을. 남포 백 씨가 세거한다.
- 장자울들 : 장자울 앞 들.
- 장좌동(長佐洞) : 장자울의 한자 표기.
- 장터고개 : 구룡에서 죽청리 세면장터로 넘어가는 고개.
- 잣말 : 서낭당이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마을의 서북쪽 산에 있는 토진곶목장 성 때문에 잣말로 부르다가 잣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성의 옛말이 잣이다.
- 증굴 : 구룡리 고뿌래의 남쪽 마을로, 옛날 그릇 굽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
- 증굴고랑 : 고뿌래 증굴에서 노천리 사그내 쪽으로 난 골짜기.
- 질마배미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채알배미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청룡 : 양청말과 마차울 사이에 있는 산줄기. 경주 김 씨의 묘가 있다.
- 춘분논 : 고뿌래 앞에 있는 논 이름.
- 큰고랑 : 증굴 북동쪽 화락산으로 난 큰 골짜기.
- 큰말 : 고뿌래 새암굴과 비하재 사이에 있는 마을로 함안 조 씨가 세거한다.
- 큰새암굴고랑 : 고뿌래 새암굴의 동쪽 골짜기.
- 턱굴 : 고뿌래 안말의 맞은쪽 골짜기.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다. 옛 어골문 기와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턱굴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통못재 : 장자울과 감나무굴 사이의 고개.
- 하구리(下九里, 마차울) : 마차울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할매바위 : 선적굴재 꼭대기에 있는 바위.

- 화망(花望) : 고뿌래의 한자 표기. 구룡 2구(화망, 장마) 중 1구. 화락산을 바라보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화망리(花望里,곶부리) : 곶부래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마차울 왕소나무(1995)



삼골의 샘과 배롱나무(2007)

3. 노천리(蘆川里)

본래 남포군 웅천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노천리(蘆田里)와 사근리(沙斤里)를 병합하여 노천리라 해서 보령군 웅천면에 편입하였다.

- 가라티 : 노천리의 서쪽 마을. 동뜸, 중뜸, 서뜸, 새터, 독자굴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사격훈련 비행 중이던 비행기가 중뜸에 추락, 1명이 숨지고 주변 가옥이 불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조종사는 탈출하여 무사하였다. 2년에 한 번 당제를 지낸다.
- 개장굴 : 사그내 마을 동쪽 누에골과의 사이에 있는 산에서 사그내 쪽으로 난 골짜기로 대부분 밭으로 이용된다.
- 고린장 : 가라티 서쪽 도로변에 있는 백제 고분이다. 도로 확포장 공사 때 발견되었다. 백제고분(석실분)을 보령지방에서는 고린장이라고 한다.
- 곰내 : 가라티 서쪽, 구룡리 마차울, 장자울에서 흘러오는 내이다. 옛날 남포현 시절에 이 내 이름을 따 주변을 웅천면이라고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에도 熊川面이라 했으므로 웅천읍의 어원이 된 내이다.
- 곰내고랑 : 가라티 서쪽 곰내가 흐르는 골짜기.
- 곰내다리 : 가라티에서 곰내고랑을 통하여 마차울로 가는 곳에 있는 다리. 노천리와 구룡리의 경계를 이룬다.
- 공동묘지 : 누에골과 용못 사이에 있는 산.

- 군들재 : 사그내에서 누에골로 넘어가는 고개. 사그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꿩바위 : 가라티 곰내고랑의 곰내 너머에 있는 4개의 바위이다. 가라티 꼭대기에 매바위가 있어 꿩바위는 숲에 꿩이 숨어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4개의 바위 모두 고인돌이다. 고속도로 공사로 발굴되고 청룡에 이전 복원하였다.
- 냉전 : 부주굴성 동쪽 골짜기. 큰골의 북쪽이다.
- 노전(蘆田) : 가라티의 한자 표기.
- 노천1리 : 1반 동뜸, 2반 중뜸, 3반 서뜸.
- 노천2리 : 1반 누에골, 2반 사그내, 3반 새터.
- 누에골 : 노천리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대천리와 접한다. 옛날에 가난한 세 노인이 누에를 쳐서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설이 있다.
- 대곶도래 : 용못과 두루다리 사이에 있는 들.
- 도투막골 : 사그내 큰골의 북동쪽, 누에골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독자골 : 가라티의 동쪽 새터의 서남쪽에 있는 도로 주변에 있는 마을.
- 돌충머리 : 누에골에서 사그내로 들어오는 산 모퉁이. 시제말림의 남쪽이다. 이곳에 思勤洞天 비가 있었다.
- 동뜸 : 가라티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 두루다리 : 노천리와 대창리 장터를 연결하는 다리. 이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으로 과거에는 두 줄로 된 징검다리였는데,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이용하지 못하고 겨울에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물이 들어왔을 때는 줄을 매고 조그만 배를 이용하여 건넜다. 1970년대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1987년 홍수에 유실되고 다시 건설하였다.
- 두루다리 : 두루다리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뒷산 : 가라티의 뒤쪽 산. 으뜸산을 부르는 다른 이름.
- 매바위 : 산제당 위에 있는 큰 바위. 바위 옆에 늙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눈이 와서 부러졌다고 한다.
- 물탕 : 가라티 원재재 밑에 있는 골짜기. 물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반생이들 : 사그내의 하천(정굴냇갈) 서쪽에 있는 들.
- 부주굴성 : 노천리와 황교리 사이의 산 꼭대기에 있는 석성.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토진곳목장성이다.
- 부처굴 : 부주굴성 서쪽 골짜기. 냉전의 북쪽 곰내고랑의 서쪽에 있다. 부처굴의 북쪽 능선이 구룡리와 의 경계이다.
- 불국바위 : 사그내와 구룡리 정굴과의 경계에 있는 바위로 색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

이다. 밑에서 석탄을 캐다고 한다.

- 사그내 : 노천리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나누어 부른다. 마을의 앞에 넓은 간척지가 있다. 사그내는 간척지에 붙는 마을 이름이다.
- 사그내재 : 누에굴과 사그내를 연결하는 재로 누에굴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사근동(思勤洞) : 사그내의 한자 표기.
- 사근동천비(思勤洞天碑) : 원래 돌충머리 구도로 옆에 있던 것을 마을회관 앞에 옮겨 놓았다. 洞天은 通天의 의미로 선녀가 내려오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사근천(沙川里, 사근니) : 사그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사근천리(思勤川里) : 사그내의 한자 표기.
- 사장터 : 가라티 독자굴 서쪽에 있는 마을. 소나무가 있었다. 이곳에서 청룡 술밭을 향하여 활을 쏘았다는 전설이 있다.
- 사천(思川) : 사그내의 한자 표기. 노천리 2구(노전, 사천) 중 1구
- 산제당 : 가라티 서뜸의 북쪽 매바위 밑, 큰샘 위에 있다. 이곳의 산제는 가라티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지낸다.
- 산제당 : 사그내 위뜸 큰골 위에 있다. 신수는 소나무이다. 정월 초사흘에 준비하여 올라가 다음날 새벽에 지냈다.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 새터 : 가라티의 동쪽 교회가 있는 마을이다.
- 서낭댕이 : 두루다리에서 누에굴로 통하는 삼거리에 서낭댕이가 있어 노천리 사람들이 위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 서뜸 : 가라티 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
- 시영굴 : 누에굴 동북쪽 화락산에 있는 골짜기.
- 시제말림 : 사그내 동쪽에 있는 산. 개장굴 동남쪽에 있다. 경주 김 씨의 시제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신간사지 : 가라티 앞에 있는 1960년대 중앙대학교 재단에서 막은 간척지.
- 신기(新基) : 새터의 한자 표기.
- 아래뜸 : 사그내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안산 : 가라티 앞쪽, 즉 대창리 접동굴에 속하는 산이다. 옛날에 가라티에는 나무가 없어 바다를 건너 이 산에서 나무하였다. 물이 빠져도 1m 정도 되는 바다를 건너 다녔다. 이곳은 모두 장수 황 씨의 종중 산으로 나무하는 대가로 얼마간의 곡식을 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노천리 사람들이 나무하러 다니면서 부르던 이름은 궁뎅이강·도사막굴·

넙적굴 · 아랫굴 · 훗작굴 · 안산 · 윗굴 · 피굴 등이다.(대창리편에서 기술).

- 안장바위 : 가라티 마을 서뚝 서쪽 도로 위에 있는 바위. 모양이 말안장과 같이 생겨서 안장바위라고 부른다. 장수가 타던 안장이라고 하여 마을에서는 산제를 지낸 후 이 곳에서 제를 지낸다. 옆에 새끼라고 하는 작은 바위가 있다.
- 앞밭 : 가라티 마을 앞쪽에 있는 밭. 해안에 위치한 단구상의 지형으로 해발 10여m 언덕을 이룬다. 예부터 밭으로 이용되었다.
- 용못 : 작은내에 있는 깊은 웅덩이. 대천리와의 경계에 있다. 작은넷물이 용못 서남쪽의 바위산에 부딪혀 깊게 침식하여 생긴 지형이다. 용못 위의 암벽 밑으로는 노전보에서 내려오는 봇물이 지난다. 예부터 기우제를 지냈다.
- 용못드래 : 용못 모퉁이를 일컫는 말.
- 용못들 : 누에골 남쪽 도로 북쪽의 논을 말함.
- 용못재 : 누에골에서 용못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재로 웅천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던 길이다.
- 웅천(熊川, 곰니) : 웅천읍 구룡리 장자울에서 노천리 가라티 마을로 흐르는 내. 현재도 곰내라고 부름 <1911, 朝鮮地誌資料>
- 원논 : 돌총머리 밑에 있는 논으로 간척하기 이전부터 있던 논이라는 뜻이다.
- 원뚝 : 일제시대 이전에 막은 간척지의 뚝.
- 원재재 : 노천리 가라티에서 황교리 광암으로 넘어가는 재. 황교리로 통하는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웅천장으로 통하는 큰 길이었다. 노천리 쪽은 경사가 심하다. 황교리 쪽에서는 원전재라고도 한다.
- 위뚝 : 사그내 마을의 북쪽 마을. 마을회관 앞에는 思勤洞天이라는 비가 돌총머리에서 옮겨 세워져 있다.
- 으등산 : 가라티 북쪽에 있는 산.
- 저수지 : 가라티 앞 논으로 봇물이 들어오는 수로 안쪽에 있는 논. 옛날 이곳에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지었다. 아직도 수문은 남아 있다.
- 절터 : 누에골 절터굴 가운데에 있는 옛 절터.
- 절터굴 : 누에골 동북쪽 골짜기로 중간에 절터가 있다.
- 정굴고랑 : 사그내의 서북쪽 골짜기로 구룡리 고뿌래 정굴로 통하는 골짜기라 부르는 이름이다. 논으로 이용된다.
- 정굴넷갈 : 구룡리 고뿌래 정굴에서 내려오는 내로 정굴에서 내려온다는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 중뜸 : 가라티 마을의 가운데 마을
- 청룡술밭 : 가라티 마을 서쪽 도로변에 있는 술밭. 술밭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곳이 마을의 좌측 능선, 즉 좌청룡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보호하는 술밭이다.
- 큰골 : 부주굴성 동쪽 골짜기. 물탕의 북쪽에 있다.
- 큰골 : 사그내 윗골 북쪽의 골짜기.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이다.
- 큰샘 : 산제당 밑에 있는 대동샘.
- 홍두깨말림 : 사그내와 누에골 사이에 있는 산에서 사그내의 위뜸 아래뜸 사이로 내민 산줄기. 홍두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화장태고랑 : 누에골 입구 공동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



가라티 정자나무(1999)



간척지준공기념비



사그내 사근동천비

4. 대창리(大昌里)

본래 남포군 고읍면(古邑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천리(大川里)·방축리(防築里)와 습의면(習衣面)의 벽동(碧洞)을 합하여 크게 창성하라는 뜻으로 대창리(大昌里)라 하여 웅천면에 편입하였다. 1928년 웅천면사무소와 웅천지서, 시장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 가막골 : 절굴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 가막산 : 가막골의 남쪽 봉우리.
- 갈마수 : 완장내 남서쪽 산사면. 형국이 渴馬飲水형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갈마수둑병 : 완장내 남서쪽에 있는 둑병.

- 갑산봉 : 충충골 꼭대기. 장수 황 씨 갑산공 黃碩鳴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강낭굴 : 한내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의 아랫부분. 옛날 강씨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기와가 출토된다고 한다.
- 개호구 : 절굴고랑이 바다와 만나는 접동굴(절굴)에서 부르는 이름.
- 궁뎡이강 : 안산(뫼봉 도인봉)의 서남쪽 끝. 노천리 가라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건너 다닐 때 엉덩이까지 물에 잠겨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접동굴에서는 보습 쪽뿌리라고 한다.
- 나문재바탕 : 뫼봉의 서쪽 훗작굴에서 궁뎡이강 사이에 있는 갯벌. 조금 때에는 바닷물이 닿지 않아 염생식물인 나문재가 많이 자랐다. 접동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남당리(南塘里) : 남댕이의 한자 표기.
- 남댕이 : 방죽굴 남쪽, 즉 대창초등학교 밑에 있는 마을.
- 넓적굴 : 안산(뫼봉 도인봉) 서쪽, 아랫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노천리 가라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농바위 : 농바위고랑 위에 있는 큰 바위로 장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농바위굴 : 농바위 남쪽에 있는 운봉산의 골짜기. 방죽굴로 통한다.
- 대창들 : 장터 서남쪽에 있는 들을 부르는 이름.
- 대천(大川) : 한내 마을과 마을 앞을 지나는 하천의 한자 표기.
- 대천리(大川里, 한니) : 한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대천평(大川坪, 한니들) : 한내마을 앞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도사막굴 : 안산(뫼봉 도인봉)의 서남쪽 골짜기. 장수 황 씨 都事公 黃有孫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천리 가라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도인봉 : 뫼봉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풍수적으로 보아 도인(道人)의 형국이라고 한다. 근처에는 도인취와형(仙人醉臥型), 즉 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형국의 명당이 있는데 이 명당 때문에 도인봉, 운봉산, 등잔거리 등의 지명이 있다고 한다.
- 돌고개 : 접동굴에서 주산면 주야리 주렴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높이 125.7m이다.
- 뫼봉 : 큰한티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로 경사가 급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 두내받이 : 완장내와 큰내가 합쳐지는 곳. 즉 완장포구를 말함.
- 등잔거리 : 접동굴 절터의 위쪽(남쪽)이다. 궤등형의 명당이 있다고 전한다.
- 말무덤 : 큰한티재로 오르는 도로의 밑. 묵은밭고랑 밑에 있는 무덤 같은 곳이다.
- 매봉재 : 운봉산 정상 서남쪽에 있는 봉우리.
- 면소산 : 어리생이에 있는 옛 면소유의 산. 현재 보령시 소유이다.

- 모래들 : 대창리의 두루다리 근처의 들.
- 묵은밭골고랑 : 절골 고랑에서 큰 한치재로 올라가는 길의 동쪽에 있는 평평한 곳. 밭이었다가 황무지로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미륵모퉁이 : 채석장이 있는 곳. 이곳에는 미륵이 있었고 미륵 앞에는 큰 반석이 있었다. 이 반석의 한가운데에는 장수발작이라고 하는 큰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채석장이 들어서서 반석도 없애고 미륵불도 없애버렸는데, 사고가 나 인명이 다쳤다. 그 후로 미륵불을 찾아보니 머리가 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머리를 시멘트로 붙여 철로와 21번 국도 사이에 세웠다. 원래는 철로 위에 있던 것이다.
미륵이 서 있는 모퉁이라 부르는 이름이다.
- 미륵불 : 철도 자갈 채석장 자리에 있던 미륵불이다. 큰 반석 위에 있었는데 옛날 부터 이 미륵불의 눈을 빼어 삶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어 아들을 못 낳은 사람들이 눈을 쪼아가는 바람에 깊이 패여 있다.
- 방죽굴 : 한내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방축(防築) : 방죽굴의 한자 표기. 대창리 2구(벽남, 방축) 중 1구. 방죽굴, 한내
- 벽남(壁南) : 대창리 2구(벽남, 방축) 중 1구. 시장, 접동굴, 남댕이, 역진.
- 벽동(碧洞) : 접동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벽동(碧東) : 접동굴의 한자 표기.
- 보습쭈뿌리 : 뒬봉(도인봉 안산)의 서남쪽 끝이다. 보습처럼 뽕쭈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접동굴(절골)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보통 : 미륵모퉁이 앞에 있는 보. 완장들에 물을 대기 위한 보이다.
- 비선거리모퉁이 : 미륵모퉁이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주산면 창암리 창말 입구에 관찰사 宋正明의 비(1714년 건립)가 있었는데 이곳으로 가는 모퉁이라 해서 비선거리 모퉁이라고 한다.
- 산제당 : 한내 앞산 꼭대기에 있었다. 1940년대까지는 마을에서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 그 자리에 묘가 있다.
- 산제당고랑 : 접동굴 위뜸의 위쪽 골짜기. 옛날에 산제당이 있었다고 하나 노인들도 보지는 못하고 말만 들었다고 한다.
- 샷갓재 : 접동굴 미륵모퉁이 앞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곳에는 샷갓 같은 가난한 초가집이 있었고 이 집을 샷갓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날에 물방앗간이 있었다.
- 새장터 : 대창리에 있는 장터. 원래 한내장(大川場)이 대천리 구장터에 있다가 1928년 면사무소의 이전과 함께 대창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새장터라 부른다.

- 새터 : 대창리의 북쪽 철로 밑 지어들에 있는 마을. 주변의 논바닥보다 약간 높은 곳에 취락이 들어서 있다. 1915년에 측도한 지형도에 의하면 아주 작은 마을이었으나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현재는 큰 마을이 되었다.
- 새터말 : 남댕이 남쪽에 있는 마을. 철도와 21번 국도가 모두 인접해 있다.
- 생선전 : 장터에서 생선을 거래하던 지역으로 웅천역 서남쪽을 말한다.
- 속들 : 웅천 시가지 서쪽에 있는 들.
- 쇠전 : 장터에서 소 등 가축을 거래하던 곳으로 과거에는 웅천역 서남쪽에 있었으나 장터의 동북쪽 끝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없어졌다.
- 선마지기들 : 남댕이 앞에 있던 들. 선마지기여서 붙여진 이름.
- 시사날고랑 : 가막골의 서쪽 작은 골짜기. 장수 황 씨의 보령입향조 묘가 있다. 장수 황 씨 묘에 시사지내는 고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신사당 : 일제시대에 신사가 있던 곳이다. 남댕이 대창초등학교 운동장 자리이다.
- 싸전 : 장터에서 곡식을 거래하던 곳으로 면사무소 북쪽 지역을 말한다.
- 아랫굴 : 안산(뽕봉, 도인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 훗작굴 남쪽에 있다. 노천리 가라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아래뜰 : 방죽굴의 아래쪽(서쪽) 마을.
- 아래뜰 : 한내 마을의 서쪽 마을.
- 아래뜰 : 접동굴의 아래쪽 마을, 즉 북쪽 마을.
- 안꼬지 : 접동굴에서 완장내로 돌아가는 곳. 완장들의 남쪽.
- 안산 : 뽕봉을 노천리 가라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앞산 : 한내 마을의 남쪽, 방죽굴 마을의 뒤쪽 산.
- 어리생이 : 대창리 북쪽 용두뿌리 남쪽에서부터 한내 아래뜰에 이르는 언덕과 같은 지역을 말함.
- 어리생이들 : 어리생이 앞에 있는 들. 1977년에 경지정리하였다.
- 오동터 : 어리생이에서 동쪽으로 움푹 들어간 지역으로 이곳에는 옛날 오 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한내 마을에는 강낭굴에 강 씨 성을 가진 부자가 또 있어서 서로 부자 경쟁을 하였다. 오동터와 강낭굴 사이에 있는 매봉재를 내려다 볼 수 있을 만큼 참깨를 먼저 쌓은 부자가 이기기로 하고 서로 겨루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현재도 기와가 출토된다고 한다.
- 옷샘 : 절굴 장수 황 씨 재실 앞에 있던 샘. 옷 올렸을 때 씻으면 나왔다고 한다.
- 완장내 : 주산에서 내려와 접동굴 앞으로 흐르는 내.

- 완장내 : 큰내와 주산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합쳐지는 곳, 즉 두내반이 아래쪽(접동굴쪽)에 있던 마을이다. 철도와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이곳이 포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10년대 초 토지조사 당시만 해도 이곳에 17필지의 垆地가 있었다고 한다. 일제 시대에는 이곳에서 쌀을 반출해 매가리간이라고 불려진 정미소가 있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토매가리라고 하는 흙으로 만든 매가리를 두 사람이 돌려 현미를 만들었고 뒤에는 똑닥이라는 원동기를 설치하여 현미를 만들어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또한 이곳에는 일본인 山下라는 사람이 운송부를 만들어 웅천·주산·비인을 배후지로 무역업을 하였고, 하역 인부들의 노동조합도 있었다고 한다. 운송부는 장터 쪽에 있었는데 완장내와 이곳은 유두다리로 연결되었다. 1960년대까지도 간간히 어선이 들어오곤 하였으나 점차 쇠퇴하였다. 취락이 있던 완장내는 현재는 논으로 변하였다. 대천리 구장터에서 면사무소와 시장을 옮길 때 이곳도 한 후보지였으나 홍수의 위험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완장들 : 접동굴 앞쪽 들. 옛 완장포구의 동쪽 들.
- 완정포(浣汀浦) : 완장포 <1911, 朝鮮地誌資料>
- 용두뿌리 : 대창리와 성동리 사이에 있는 낮은 산. 성동리 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 용왕바위 : 갈마수둑병 위에 있는 바위로, 수십 명이 앉을 만하고 이곳에서 송어낚시를 하였다. 옛날에 날이 가물면 남포 현감이 이곳에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다.
- 운봉산 : 대창리 방죽굴 남댕이 동쪽에 있는 산. 성동리 쪽에서는 성뢰산으로 부르나 대창리에서는 운봉산으로 부른다. 337.3m이다. 정상부에 산성이 있다.
- 원굴 : 남댕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 안에 기와집 터가 있다. 갑산 군수를 지낸 長水人 甲山公 黃頌鳴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원굴의 입구 철로변에는 1970년대 초까지 도축장이 있었다. 이곳에 석재공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 원보 : 대창우체국 근처에 있던 보이다.
- 원보들 : 원보 근처에 있던 들.
- 위골 : 절굴 고랑을 노천리 가라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위뜸 : 방죽굴의 위쪽(동쪽) 마을
- 위뜸 : 접동굴 남쪽 한치고개 밑 골짜기.
- 위뜸 : 한내 마을의 동쪽 마을. 성동리 안성굴과 통한다.
- 유두다리 : 큰 돌을 냇물에 놓아 만든 징검다리. 완장내(주산쪽에서 내려오는 내)에는 완장내 포구 취락 앞, 현재의 접동굴 마을 입구 다리 서쪽, 샷갯재모탕이 등 3곳에

있었다. 보령지방에서는 징검다리를 보통 유두다리라고 부른다.

- 육굴 : 남댕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 대창초등학교의 뒤쪽 골짜기이다.
- 작은한치 : 접동굴에서 절굴로 넘어가는 고개.
- 장터 : 대창리에 있는 5일 정기 시장을 말함. 1928년 이전 후 새장터로 불렸으나 점차 장터라고 부른다. 2, 7일이 장날이다.
- 절굴고개 : 접동굴 윗골에서 절굴로 넘어오는 고개. 한치고개의 동쪽으로 산허리를 넘는다.
- 절굴고랑 : 절굴의 아래쪽 골짜기를 말한다. 갑산봉과 뽕봉 사이를 지나 갈마수로 들어간다.
- 절터 : 농바위골에 있는 옛 절터이다.
- 절터 : 절굴의 동쪽에 있다. 과거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접동곡(接洞谷) : 접동굴의 한자 표기.
- 접동굴 : 대창리의 남쪽 마을이다. 과거에는 습의면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웅천면으로 편입되었다. 위뜸과 아래뜸으로 나눈다.
- 정문 : 長水人인 黃廷直 黃有業의 호자 정문이다. 황교리 광암에 있다가 공군 사격 훈련장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졌다. 黃廷直은 황희 정승의 6세손으로 그의 아버지인 黃蕘이 병석에 눕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입에 흘려 넣었고, 돌아가자 그 슬퍼함과 예가 극진하였다. 그의 효행이 알려져 인조 을축년(1625)에 벼슬을 내리고 정려를 내렸다. 1657년 77세에卒하였다. 黃有業은 黃廷直의 손자로 숙종조인 1712년에 효로써 정려가 내려졌다.
- 정자 : 한내 아래뜸 앞에 있는 정자나무. 현재 은행나무 있는 곳에 4~5아름 되는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일제 시대에 베어내고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었다. 현재 있는 느티나무도 원래 있던 나무의 새끼라고 한다. 지금도 매년 정월에 택일해서 마을의 부인들이 제를 지낸다.
- 정자나무 : 남댕이 마을 입구의 하천변에 있는 버드나무. 현재는 남댕이 앞에 2그루 새터말 앞에 2그루가 있다. 과거에는 소나무도 함께 서 있었는데 현재는 버드나무만 남았다. 이 버드나무도 몇 아름이나 되어 마을 사람들의 쉼터로 이용된다.
이 나무에는 정월 보름에 남댕이 마을 대동에서 제를 지낸다. 옛날 이곳 마을에 살던 홍 부령(벼슬 이름)이 심었다는 전설이 있다. 버드나무의 잎이 늦게 피면 홍부령의 운이 떠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
- 정자나무 : 방죽굴 위뜸으로 올라가는 길과 남댕이 대창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었다. 근래에 죽어 베었다.

- 중뜸 : 한내 마을의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
- 중재 : 한내 마을에서 성동리 안성굴로 넘어가는 고개. 운봉산 자락으로 나 있다.
- 지어들 : 새터 남쪽에 있는 들.
- 참샘 : 일제 시대 초기에는 대창리 장터에는 가옥이 한 가구도 없었고 현재의 21호 국도 있는 곳으로 길만 나 있었다.
이 길 밑 논에 샘이 있었는데 물이 좋아 참샘이라고 불렀다. 현재 대영루 앞 도로의 서쪽 언덕 밑에 있었다. 오염되어 허드렛물로 쓰다가 없어졌다.
- 채석장 : 미륵모태이에 있는 채석장으로 철도 자갈을 채취하였다.
- 청룡모루 : 접동굴의 서쪽 산 밑으로 완장포구의 남서쪽이다. 풍수상 좌청룡에 해당되어 청룡모루라 부른다고 한다.
- 청연포(靑淵浦) : 완장내의 다른 이름. 옛 지리서에 표기되어 있다.
- 청연포(靑淵浦, 갈마소) : 완장포. <1911, 朝鮮地誌資料>
- 충충굴 : 절굴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서남쪽에 있는 산을 지칭하기도 한다.
- 큰굴 : 강낭굴 위쪽에 있는 골짜기.
- 큰다리 : 큰내의 큰 철다리 밑에 있는 다리. 일제 시대인 1932년 7월 길이 75m로 가설하였다가 1960년대 말에 현재의 길이와 폭으로 보수하였다.
- 큰철다리 : 큰내에 장항선 철도가 통과하는 다리. 6.25 사변에 폭격을 맞았으나 끊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교각의 곳곳에 탄흔이 있다.
- 큰한티 : 대창리 절굴과 주산면 증산리 시루메 사이에 있는 고개. 근래 포장도로가 지나고 있다. 보통 한티라고도 부른다.
- 턱바위 : 용암바위 뒷산에 있는 바위.
- 피골 : 갑산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임진왜란 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 와 숨어 있었는데 어린 아이가 울어 발각될까 염려하여 어머니가 데리고 나와 앞의 갈대밭에 엎어 놓았다. 잠시후 왜군이 공격해 와 피골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 피가 골짜기로 흘러 내렸고, 아기와 그 어머니는 갈대밭에서 무사했다고 한다. 골짜기로 피가 흘러 피골이라고 불려진다고 한다. 근래 이곳에 채석장이 들어서 일부분이 훼손되었다.
- 한내 : 대창리의 동북쪽 마을. 옛날 대창리의 중심 마을이었다. 아래뜸 중뜸 위뜸으로 구분된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내(큰내)의 이름을 따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 한내고랑 : 운봉산의 큰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내로 통하여 한내고랑이라고

부른다.

- 한내들 : 한내 마을 앞 들.
- 한내들 : 한내 마을 앞쪽에 있는 들. 현재 성동리 중보에서 물을 끌어 댄다.
- 한축(漢築) : 한내와 방죽굴을 통틀어 부르는 말.
- 홋작굴 : 안산(뫼봉,도인봉) 서쪽, 윗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노천리 가라티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 흥두개날 : 뫼봉(도인봉 안산) 서쪽에 뻗은 산 능선으로 접동굴(절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방죽굴,남댕이 마을(1988)



정미소(2005)



남댕이 정자나무와 장승(2001)



석재공장(2007)

5. 대천리(大川里)

본래 남포군 웅천면 지역으로서, 이곳에 흐르는 큰내를 한내라고 불렀고 이곳에 섰던 시장을 한내장(大川場)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천리라 하였다.

- 개바지고랑 : 잔미산 남쪽 사면, 큰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개치밭고랑 : 잔미산 남쪽 사면, 개바지고랑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구장터 : 대천리를 가장 빈번하게 부르는 이름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천리라고 하고 주민들이 부를 때는 보통 ‘구장터’라고 한다. 1928년 4월 5일 응천면 청사를 이곳 대천리에서 대창리로 옮겼고, 시장은 1928년 7월 23일 옮겼다. 이곳에 섰던 시장은 ‘한내장’으로 불렸고 ‘大川場’으로 표기하였다.
- 노전보 : 수부리에서 흘러오는 큰내를 옛 전기회사(변전소) 앞에서 막은 보이다. 이 물이 작은 철다리를 거쳐 두룡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져 또 하나의 노전보를 지나 응천초등학교 앞과 용못 위쪽을 통과하여 노천리로 들어간다. 노천리 앞들의 간척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노천리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보이다.
- 노전보 : 작은 철다리 밑으로 오는 물과 두룡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곳 바로 남쪽에 있다. 노천리로 물을 대기 위하여 만든 보이다.
- 대천1리 : 1·2·3·4반 대천리, 5반 화락메.
- 대천2리 : 1반 숙쟁이.
- 면소다리 : 화정교를 말한다. 면 소재지에 있는 다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물탕 : 잔미산 남쪽 사면, 개치밭고랑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동리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물탕골 : 잔미산 남쪽 사면에 있는 물탕 동쪽의 골짜기이다. 잣티골이라고도 부른다. 성동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부원군묘 : 생갯말 서쪽, 잔미산의 서남쪽 끝은 풍수설로 보아 성주 8모란의 하나라는 전설이 있어 많은 묘가 들어서 있다. 그 중에 부원군 묘로 전하는 묘가 있다.
- 삼동골 : 잔미산 남쪽 산록, 옷나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동리 외성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샘골 : 세옹골을 부르는 다른 이름.
- 생갯말 : 대천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과거에 남포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불렀던 향교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세옹골 : 대천리의 최남단 화락메의 남쪽 지역을 말한다.
- 소금바위 : 화락산의 북쪽 무창포 가는 길 입구에 있던 바위이다. 역암으로 된 큰 바위로 길 위 산쪽에 있었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 때 부수어 버렸다.
- 숙쟁이 : 작은내와 큰내 사이에 형성된 섬이다. 일종의 하중도(河中島)로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척박한 땅이다. 과거에는 홍수의 염려가 있고 척박하여 주민의 거주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근래 제방의 축조로 석공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석공장과 가옥이 들어서

있다. 과거 이곳에 있던 도로는 홍수의 위험 때문에 도로 포장되어 있었다.

- 솟쟁이 : 숙쟁이의 다른 이름.
- 시장터 : 화정교 동남쪽 철길 밑으로 1928년 면사무소가 이전될 때까지 시장터였다. 웅천지서도 이곳에 있었다.
- 영당 : 집성당의 다른 이름.
- 솟나무골 : 잔미산 남쪽 사면에 있는 잣티골 동쪽의 골짜기이다. 성동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용못 : 대천리의 최남단, 노천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작은넷물의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깊은 못을 이루었다. 깊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부사방조제 제방을 막기 전에는 바다 고기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가뭄이 심할때 주변의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용못 옆에 있는 산 줄기는 닭의 머리이고 용못에서 물을 먹고 있는 형국이라는 전설도 있다.
- 위뜸 : 대천리의 서북쪽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 작은내 : 숙쟁이와 화락메 사이를 흐르는 내로 두룡리에서 흘러오는 물과 노전보에서 흐르는 물이 합하여져 흐른다. 갈수기에는 노전보로 물을 돌려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
- 작은다리 : 웅천초등학교와 큰다리 사이에 있는 1937년 5월 17일 건설한 다리이다. 6.25 사변 때 미군의 폭격으로 끊겼었으며 1960년대까지 다리 밑에 포탄으로 패인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원래 있던 다리는 사용하지 않고, 옆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다.
- 작은철다리 : 작은내에 놓여진 철다리이다. 6.25 사변 때 미군의 폭격으로 1칸이 파괴되었었다.
- 잔미산(잣미산) : 대천리의 동북쪽에 있는 산. 최고봉은 416.8m이며 대천리 쪽에도 350m 이상의 봉우리를 이룬다. 중생대 퇴적층으로 되어 있어 경사가 급하며 곳곳에서 오석이 산출된다. 꼭대기에 봉수대터와 대천리산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잣티골 : 잔미산 남쪽 사면에 있는 물탕 동쪽의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대천리산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성동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물탕골이라고도 한다.
- 전기회사모퉁이 : 생갯말 동북쪽 수부리로 통하는 모퉁이이다. 이곳에 변전소가 있어 웅천 대천 일원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남포로 이전하였다. 이곳에 변전소를 만들기 전에는 구장터 느티나무 북쪽 50여m 떨어진, 무창포로 통하는 도로변에 전기회사가 있어 전기를 공급하였다.

- 정굴 : 잔미산 남쪽 산록에 있는 삼동굴 동쪽 골짜기. 성동리 외성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정자나무 : 위뜸에 있는 정자나무(느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정자나무 밑으로 무창포 쪽으로 통하는 길이 나있어 장꾼들이 쉬어가곤 하였다. 나무 밑 담속에는 관찰사 宋正明의 비 등 2개의 비가 있다.
- 줍방바위 : 잔미산의 서남쪽 끝에 있는 바위. 철길 위 부분에 있다.
- 중건내갈 : 작은내의 철다리 윗 부분을 말함.
- 중뜸 : 숙쟁이 북쪽 지역으로 과거에는 밭으로 이용되거나 습지였는데 주변에 제방이 축조된 뒤로 많은 가옥이 들어서 있다.
- 지네바위 : 생갯말 서쪽 잔미산 서남쪽 끝에 있는 바위. 잔미산 전체가 풍수설로 보아 지네의 형국이라고 한다.
- 집성당(集成堂) : 화락메 남쪽에 있는 사당으로 1898년에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 坡坪人)이 주동이 되어 유림들이 건립하였다. 주회와 송시열이 배향되었다.
- 큰골 : 전기회사 모퉁이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대천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큰내 : 성주 미산 외산에서 흘러오는 큰 내로 근래에는 큰내라고 불렀으며 표기는 大川이라고 하였다. 한내는 마을과 시장(한내장)을 지칭하였고 냇물은 작은내와 비교하여 큰내로 불렸다. 큰내에는 은어가 많아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 큰다리 : 큰내에 놓여진 다리로 일제시대 초기까지는 전기회사 앞에 돌다리가 있었고 이곳에는 나무만 있었다(1915년 측도 1:50000 지형도).
1933년 길이 75m로 가설되었다. 6.25 사변 때 미군의 폭격으로 다리가 끊겼었다. 근래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원래 있던 다리에 덧대어 폭을 확장하고 길이도 확장하였다. 다리 확장 공사 때 다리의 상판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있었다.
- 큰철다리 : 큰내에 놓여진 철교이다. 6.25 사변 때 폭격을 맞기는 했으나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 향교말 : 생갯말을 부르는 이름. 과거에는 생갯말이라고만 불렀으나 그 어원을 찾아 향교말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마을 입구에 비석도 세워 놓았다.
- 호동박굴 : 잔미산 남쪽 산록 정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호동박굴다리 : 성동리 외성(뱃성굴)에서 잔미산 남쪽 산록 호동박굴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이 다리를 통하여 성동리 사람들이 잔미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 화락메 : 대천리의 남쪽 웅천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다. 웅천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여러 채의 가옥이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는 학교 서남쪽 지역을 지칭한다.

- 화락산(花落山) : 대천리 서남쪽에 있는 200여 m의 산으로 차령산맥의 줄기를 이룬다. 지질적으로는 중생대 남포층군에 속하여 퇴적암으로 되어있고 경사가 매우 급하다. 이 산은 풍수적으로 떨어진 꽃과 같다고 하며, 북쪽의 고뿌래(花望)에서 꽃을 바라본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또한 화락산은 닭의 형국이고 잔미산은 지네의 형국인데 냇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다가 닭이 고개를 돌린 형국이라는 말도 전한다.
- 화정교(花汀橋) : 대천리 중심에 있는 다리이다. 일제 시대에 건설하였고 과거에는 이 다리를 통하여 대천 부여 방향으로 통하였다. 1922년 가설되었다(11m). 최근 홍수에 유실되고 다시 건설하였다. 면소다리라고도 불렀다.
- 화정리(花汀里) : 구장터의 중심지역을 말한다. 이곳에 면사무소와 지서, 시장이 있었다. 일제 시대에 생겨난 이름으로 보인다.



독다리의 옛 돌다리(1992)



옛 웅천면사무소 정문(2007)

6. 독산리(獨山里)

본래 남포군 웅천면 지역으로, 홀피의 한자 표기인 獨山을 따 독산리라 하였다.

- 가사니 : 흑섬 주변에 있는 돌너덜을 말함. 이곳에 큰 바위가 많았는데 일제 시대 무창포 방조제 건설 공사 때 사용하였다.
- 가사니독살 : 가사니의 서쪽, 즉 동뒤 앞에 있던 독살
- 가사니쪽뿌리 : 간조 때 나타나는 가사니 돌너덜의 끝.
- 간드리재 : 석갈매에서 아래간드리로 넘어가는 고개.
- 감적굴 : 석갈매재 동쪽, 큰골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 갓굴 : 감적굴과 배쪽다리 사이에 집이 몇 채 있는 마을.
- 개안이 : 독산리의 서쪽 바닷가. 마을의 언덕 너머를 말한다.

- 거치레 : 독대섬 앞에 있는 섬. 사리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어획활동을 한다.
- 거치레목 : 독대섬과 거치레를 연결하는 출입구. 지형이 높아 간조 때 길이 생긴다. 무창포의 석대목보다 깊다.
- 검반재 : 장고개 남쪽의 고개.
- 내상태 : 참새굴의 서쪽, 후망굴의 남쪽, 집이 한 채 있는 곳을 말한다.
- 당산재 : 흘피 마을의 뒷산.
- 독대섬 : 독대섬 동쪽에 있는 마을. 과거에는 집이 7채 있었는데 지금은 3가구가 거주한다.
- 독대섬 : 독산리 서쪽에 있는 섬. 육지와 모래로 연결되고 군부대가 있다.
- 독산(獨山) : 흘피의 한자 표기.
- 독산1리 : 1반 큰동네, 2반 뒷메, 3반 즉새.
- 독산2리 : 1반 후망골, 2반 석갈미.
- 동뒤독살 : 가사니독살의 다른 이름.
- 뒷메 : 흘피의 남쪽에 있는 마을. 낮은 언덕의 동쪽에 길게 위치한 마을이다.
- 등짐매 : 독산리의 입구. 즉 소항리 회여물의 서북쪽 언덕이다.
- 판여 : 지지배바위 앞에 간조 때 나타나는 돌너덜.
- 마생이구녕 : 독대섬 동남쪽에 있는 구멍으로 옛날 말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 마실앞 : 동뒤의 동쪽 언덕 너머에 있는 골짜기. 천국복음교회의 밑이다.
- 마여 : 할미섬 서북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돌너덜.
- 말무덤 : 독대섬 마을 동쪽에 있는 무덤처럼 생긴 지형.
- 매봉재 : 검반지 남쪽의 봉우리. 죽청리와와의 경계이다.
- 머스매바위 : 아래해너물의 서남쪽 끝에 있던 바위.
- 배폭다리 : 보두막재와 등짐매 사이에 있는 다리. 독산 앞들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내에 놓였던 다리로 현 배의 바닥으로 다리를 놓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 벌뜩 : 섬밭 중 내륙 깊숙히 있던 섬밭. 집이 1채 있었다. 이 섬밭 안에서 백제 시대 토기(높은 술잔)가 발견되었다. 상부는 모래 하부는 갯벌로 구성되어 있었다.
- 보두막재 : 흘피와 배폭다리 사이에 있는 언덕. 이곳에 마을회관이 있고 마당이 넓어 버스 종점으로 이용한다. 간척사업유공자와 전 이장의 비가 있다.
- 봉산재 : 왕재 북쪽 관당리와 경계에 있는 산봉우리. 삼각점 높이는 65.3m이다.
- 빗독거리 : 석갈메재 서쪽에 있던 전 이장 김성배의 비 때문에 붙여진 이름. 김성배는

흉년이 들자 몇 년간 모조(이장에게 주민이 거두어 주는 봉급 형식의 벼와 보리)를 받지 않아 주민이 비를 세웠다. 원래의 비는 없애고 모두막재에 새로 만들어 세웠다.

- 샘모탕이 : 즉새의 남쪽.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셋장벌 : 독산리 서쪽에서 남쪽으로 뻗은 일종의 사취. 장벌 안쪽의 석호는 모두 간척지화 되었다.
- 서근여 : 탄여 서쪽에 있는 간조 때 나타나는 돌너덜.
- 석갈메 : 해너물굴 북쪽에 있는 마을.
- 석갈메안산 : 석갈메 동쪽에 있는 산.
- 석갈메재 : 감적굴에서 해너물굴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회관이 있다.
- 섬밭 : 독산리 소황리 앞 들판에 있던 섬처럼 생긴 지형. 높이는 해발 5~6m 정도로 모래 또는 실트질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최고 해수면보다 1~2m 높다. 들 가운데 있는 섬처럼 생긴 지형이며 밭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섬밭으로 불렸다. 과거 고해수면의 증거이거나 고사구의 일종으로 보인다.

독산리 소황리에 모두 12개의 섬밭이 있었기 때문에 풍수상 12첩 반상과 같다고 여겨, 묘를 쓰면 12첩 반상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따라서 섬밭과 주변에 묘가 많다. 독산의 어원이 된 흘피라는 말도 이 섬밭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 소금벌 : 독산리 남쪽 들. 벌뚝의 남쪽으로 과거에 소금을 굽던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셋재 : 셋장벌 북쪽의 모래 언덕. 모두 소나무가 심어져 울창하다.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와우치(臥牛峙) 또는 셋재라고 한다고 한다.
- 수문턱 : 벌뚝 동쪽에 있던 과거 간척지의 수문. 이 수문에 간척공사에 공이 많은 高洪甲의 비가 있었는데 독산리 마을 회관 앞에 옮겨 놓았다.
- 수해재 : 즉새 마을에서 샘모탕이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 아래해너물들 : 해너물들의 아래쪽에 있는 들.
- 아랫개안이 : 개안의의 남쪽으로, 주로 밭으로 개간되었다.
- 양각산 : 참새골과 후망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옥호 : 즉새 앞쪽에 있는 들.
- 와우치(臥牛峙) : 셋재의 한자 표기.
- 왕재 : 봉산재 남쪽 마실골과 석갈메 사이의 고개.
- 원들 : 배쪽다리 바로 남쪽의 논. 간척사업 이전에 있던 논이라는 뜻이다.

- 위해너물 : 해너물굴의 위쪽에 있는 들.
- 윗개안이 : 개안의 북쪽.
- 장고개 : 독산리 후망굴에서 죽청리 덕산봉으로 넘어가는, 장 보러 다니던 고개.
- 종산꼭대기 : 태봉재 남쪽에 있는 산 봉우리. 종중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즉새 : 뒷메 남쪽에 있는 마을.
- 지지배바위 : 당산재의 서쪽 끝 바닷가에 있던 바위.
- 직언도(直言島) : 거치레. 여지도서에는 ‘巨次羅島’라고 표기되어 있다.
- 짐등병 : 동뒤 남쪽에 있는 산의 남쪽 기슭.
- 참새굴 : 독산리 입구의 첫 마을이다. 소황리 희여물의 북쪽에 있다.
- 큰골 : 큰골과 후망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태봉재 : 독산리와 죽청리 관당리의 경계가 되는 산. 덕산봉봉수가 있었다.
- 터진목 : 아래해너물의 바다 쪽으로 열려있는 곳.
- 할미섬 : 아래해너물 앞에 있는 섬. 높이 10.8m이다.
- 해너물들 : 석갈메재 서북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는 왕재를 에워싸고 서쪽으로 흐른다. 1994년에 경지정리 되었다.
- 흘피 : 독산리의 중심 마을. 독산의 지명도 이 마을에서 생겼다.
- 흘피당제 : 당산재의 동쪽 꼭대기에는 한아름되는 당소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에 초가 1칸의 당집이 있었는데 정월 보름날 당제를 지냈다. 당집 안에는 제기가 보관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이곳에 당할머니가 모셔져 있다고 믿었다. 30여 년 전까지 당제를 지냈다.
- 황죽도(黃竹島): 보통 ‘황지기’라고 부른다. 주변에는 우럭 놀래미 등이 많아 무창포 쪽에서 출어하는 어선들의 주 어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1986년 소황리사격장이 개설되면서 공군 사격장으로 이용된다. 2007년 2월 13일에는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가 이 섬 북방 0.5마일 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이 섬의 서남쪽에는 용구멍이라고 하는 해식동굴이 있어 통달산 꼭대기의 웅덩이와 통하여 용이 산다고 믿고 있었다. 옛날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이 섬 용구멍에 와서 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 황직이 : 황죽도의 순수 우리말 이름.
- 후망(厚望) : 후망굴의 한자 표기.
- 후망굴 : 양각산과 큰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
- 흑섬 : 동뒤 서쪽에 있는 작은 섬.



독살(1996)



독산사구(2004)

7. 두룡리(杜龍里)

본래 남포군 신안면(新安面) 지역의 두명리(杜鳴里)와 웅천면 지역의 용와리(龍臥里)를 병합하여 두룡리라 해서 웅천면에 편입하였다.

- 가나무재 : 갯티에서 잣티로 넘어가는 재.
- 가운데굴 : 윗잔피 갯굴 남쪽에서 잔피산으로 향한 골짜기.
- 갯굴 : 윗잔피의 이어나재 남쪽에 있는 첫째 골짜기. 이 골짜기의 북쪽 능선을 따라 남포면과 경계한다.
- 검배들 : 담도라들 북쪽의 들.
- 구레 : 두루니 양지뜸과 음지뜸 사이에 있는 들.
- 구봉산 : 원굴의 서쪽 두루니의 북쪽에 있는 산. 높이 275.1m.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꼭대기에는 옛 봉화터가 있다. 남포에서는 둥구산, 동산으로도 불린다.
- 구수고랑 : 두루니 양지뜸 수박재가 있는 골짜기.
- 구전배미들 : 쌍바위들 북쪽 들.
- 그늘바위 : 그늘바위굴 위에 있는 바위.
- 그늘바위굴 : 아랫잔피 병목굴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로 위쪽에 그늘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깊은개울 : 이어나재 남쪽에서 서쪽으로 난 골짜기. 윗잔피의 맞은쪽에 있다.
- 누에메굴 : 아랫잔피 마리바위굴의 다른 이름. 꾸지뽕 나무가 많다.
- 담도라 : 할미봉 남쪽 산비탈. 즉 두루니와 용안이의 경계지역을 말한다.
- 담도라들 : 담도라 남쪽에 있는 들.

- 담배밭굴 : 윗잔피 보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상당 부분까지 파라다이스 포도 농장으로 개간되었었다.
- 두루니 : 두룡리의 북쪽 지역으로 옛 신안면 관할 구역이다. 과거에는 신안재를 통하여 남포 양기리와 왕래가 빈번하였다. 양지뜸과 음지뜸으로 나뉜다.
- 두명(杜鳴) : 두루니의 한자식 표기. 두룡리 2구(용와, 두명) 중 1구.
- 두명리(杜鳴里, 두룬니) : 두루니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뒷매 : 할미봉을 용안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마을의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의 중턱에는 산제당이 있었다고 전하나 노인들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 마리바위 : 아랫잔피 마리바위골 꼭대기에 있는 마루처럼 생긴 평평한 바위.
- 마리바위굴 : 아랫잔피 호성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마리바위가 있다.
- 바위배기 : 두룡관광농장 앞에 있는 들.
- 병목굴 : 아랫잔피 절터굴 남쪽에 있는 크고 깊은 골짜기. 이곳에서 석탄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병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보굴 : 가운데굴 남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 잔미산 최고봉의 바로 밑이다. 해발 100여m까지 포도밭으로 개간되었었다.
- 봉춘재 : 두루니 원굴에서 남포면 봉춘으로 넘어가는 고개. 해발 높이 140여 m이다. 고개의 남쪽 골짜기는 논으로 개간되었고 위쪽에는 소류지가 있다.
- 비하재 : 구룡리 고뿌래 비하재 마을과 통하는 고개로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다.
- 비하재고랑 : 비하재의 동쪽 골짜기.
- 사당굴 : 두루니 양지뜸의 서쪽 구봉산 밑 골짜기.
- 사창사(土昌祠) : 두루니 양지뜸에 있다. 고려말 대현 · 충신인 성주이씨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선생의 사우이다. 300여 년 전 남포면 소송리 사창동에 건립되어 존속되어 오다가 1900년대 초 이곳으로 이건(移建)하였다. 그후 퇴락되어 1991년에 개수하였다.
- 산안재 : 두루니에서 남포면 양기리로 넘는 고개. 높이 130m 내외로 예부터 통행이 많았다. 재너머가 과거의 신안면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산제당고랑 : 용안이 뒷매의 골짜기. 옛날 산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 새태굴 : 두루니 양지뜸 마을의 성주 이 씨 사우 뒤에 있는 골짜기.
- 새터 : 용안의 서쪽 마을로 비하재를 통하여 구룡리와 접한다.
- 새터앞들 : 용안이 새터 앞 들.
- 서낭랭이 : 비하재의 꼭대기에 있다. 현재도 남아 있다.

- 서낭댕이 : 장승거리 남쪽 도로변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 서낭댕이 : 잿티재 꼭대기에 있다. 재티재 북쪽에 있는 집 2가구도 서낭댕이라고 부른다.
- 서낭댕이재 : 용안이 새터에서 잿티로 넘어가는 재. 꼭대기에 서낭이 있다.
- 선바위 : 아랫잔피 선바위골 꼭대기에 있는 바위.
- 선바위골 : 아랫잔피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위쪽에 선바위가 있다.
- 솔리너머 : 두루니 읍지뜸 할미재고랑 서남쪽의 능선 너머를 말함.
- 수박재 : 지리재 북쪽에 있는 고개. 요즈음은 통행하지 않는다.
- 심바위골 : 아랫잔피 마리바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의 꼭대기에는 높은 바위가 있다.
- 싱그랭이 : 보령주유소 근처의 들.
- 쌍바위 : 용안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바위로 테퇴산의 동북쪽 끝에 있다.
- 쌍바위들 : 쌍바위 앞에 있는 들.
- 아랫잔피 : 잔피산 서쪽 사면에 있는 마을 중 파라다이스 공장 남쪽 지역
- 아랫주막 : 주막거리의 아래쪽에 있던 주막.
- 안산 : 턱굴재에서 새터 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
- 양지뜸 : 두루니의 북쪽 마을, 즉 구봉산 밑 마을. 남향이라 부르는 이름이다.
- 용밑 : 쌍바위 밑의 냇물을 말함. 큰 바위가 있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 용밑보 : 용밑에 있는 보로 재티들 7섬지기(140마지기)에 물을 대었다고 한다.
- 용수말 : 용안의 동북쪽 마을. 담도라와 접한다.
- 용안이 : 두룡리의 남쪽 마을. 용수말, 용안이, 새터를 통칭한다.
- 용안이 : 용안이 마을의 가운데 마을만을 말하기도 함.
- 용와(龍臥) : 두룡리 2구(두명, 용와) 중 1구.
- 용와리(龍臥里) : 용안의 한자식 표기.
- 원굴 : 두루니의 북쪽 마을. 현재 두룡관광농장이 있는 곳이다. 칠원 윤 씨가 세거하였다.
- 윗굴 : 신안재 동쪽, 즉 양지뜸과 읍지뜸의 서쪽 지역을 말함.
- 윗잔피 : 잔피산 서쪽 사면에 있는 마을 중 파라다이스 공장 북쪽 지역.
- 윗주막 : 주막거리의 위쪽에 있던 주막.
- 이어니재 : 웅천읍 두룡리와 남포면의 접경이 되는 고개이다. 도로가 개량되기 전에는 인적이 드물고 음침하여 다니기를 꺼려했다. 6·25 사변 중 보도연맹원의 총살, 주산

전투에서 인민군에게 생포된 철도 경찰의 총살이 모두 이 고개에서 이루어졌다.

국도 21호선이 고개를 지나고 철도는 터널로 통과한다.

- 이어니재굴 : 이어니재에 뚫린 철도 터널.
- 이현(梨峴) : 이어니재의 한자 표기.
- 작은청룡 : 두루니 양지뜸 마을 가운데로 내민 산줄기.
- 잔뢰 : 잔뢰산 서쪽의 산사면에 있는 마을을 통칭하는 말. 1970년대에 이곳 완사면에 포도농장이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없어졌다.
- 잔뢰산 : 두룡리와 대천리, 수부리의 경계가 되는 차령산맥의 줄기이다. 정상에는 옥미봉봉수대지가 있고, 대천리 쪽에는 대천리산성이 있다. 대천리산성 때문에 잣뢰(잣=성)라고 불리다가 잔뢰산이 되었다.
- 장승거리 : 21번 국도에서 용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경지정리 이전에 쌍바위로 통하는 길 입구이다. 이곳에 장승이 있었다고 전하나 노인들도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 잣티 : 구장터와 테메산 사이의 들. 테메산의 성에서 유래한 잣티가 변한 것임.
- 잣티재 : 용안에서 잣티로 넘어가는 고개. 꼭대기에 서낭당이 있다. 성(城)의 고어인 ‘잣’에서 유래한 말.
- 절터굴 : 아랫잔뢰 선바위굴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점심청 : 주막거리 동쪽 지역. 들밥을 먹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
- 주막거리 : 두루니 마을 입구의 주막이 있던 거리.
- 줍방바위 : 장승거리 남쪽 21번 국도의 오르막 길 옆에 있던 바위.
- 지리재 : 두루니와 원굴을 이어주는 두루니 양지뜸 동쪽에 있는 고개.
- 지리재산 : 두루니 양지뜸과 21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으로 마을의 동쪽을 감싸고 있다. 두루니와 원굴을 잇는 지리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진보 : 용밑보 남쪽에 있던 보. 보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30여 마지기에 물을 대었다고 한다.
- 참나무굴 : 장승거리 남쪽 21번 국도의 오르막을 부르는 이름.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굴 : 아랫잔뢰 심바위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
- 큰청룡 : 두루니 양지뜸의 새터굴 서쪽에 남쪽으로 내민 산줄기.
- 턱굴재 : 용안에서 남포면 턱굴로 넘어가는 고개.
- 테뢰산 : 용안이 앞을 가로막은 산. 테뢰식 토성이 있다. 최고봉이 81.5m이다.
- 할미봉 : 두루니 읍지뜸 마을 서남쪽에 있는 봉우리. 높이 245.9m이다.

- 할미재 : 두루니 읍지뜸에서 할미봉으로 오르는 고개.
- 할미재고랑 : 두루니 읍지뜸의 남서쪽 골짜기로 할미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함박굴 : 두루니 읍지뜸의 서쪽 골짜기.
- 호성굴 : 윗잔뢰의 담배밭굴 남쪽 골짜기.



사창사(1995)



용아니 마을논 기록비(1997)

8. 성동리(城洞里)

본래 남포군 고읍면(古邑面) 지역으로서 산성(山城)이 있으므로 성골 또는 성동(城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내성동(內城洞)과 외성동(外城洞)을 병합하여 성동리라 해서 보령군 웅천면에 편입하였다.

- 가자울 : 안성굴 가줄의 다른 이름이다. 보통은 가줄이라고 부른다.
- 가줄 : 안성굴의 남서쪽 대창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골짜기. 성피산으로 통하는 긴 골짜기인데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고, 2가구가 거주한다.
- 개안밭 : 위뜸 북쪽에 있는 밭.
- 건너밭 : 밧성굴 아래뜸 북쪽, 정자뜸 서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밧성굴의 중심 취락에서 보아 들 건너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건방죽굴 : 안성굴 매봉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과거에 비가 올 때만 고이는 방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공수수 : 모래들의 북서쪽을 부르는 이름.
- 공수수밭 : 모래들의 북서쪽에 있던 밭. 모두 논으로 정리되었다.
- 구지너머 : 밧성굴 건너밭 북동쪽 들.
- 금정굴 : 안성굴 가줄에서 남쪽으로 난 골짜기. 과거에 금을 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내성(內城): 안성굴의 한자식 표기. 성동 2구(내성, 외성) 중 1구.
- 녹수보 : 빗성굴 앞내의 아래뜰 앞에 있는 보.
- 도랑목 : 안성굴 음지뜰을 부르는 다른 이름.
- 뒷내 : 빗성굴 뒤쪽에 있는 내. 즉 웅천천을 말한다.
- 뒷동굴 : 안성굴 가줄의 금정굴 맞은쪽 지역을 부르는 이름.
- 뚝아보 : 배챙이 안에 있는 보 수로 중, 홍수 때 물을 버리는 곳.
- 매봉재 : 성퇴산에서 안성굴로 내려온 산줄기의 끝으로 높이 76.7m이다.
- 모랫들 : 빗성굴의 서쪽 들로 모래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 1982년에 경지정리.
- 모장재 : 안성굴 양지뜰 남쪽의 정자나무가 있는 작은 고개.
- 묘동(卯洞) : 가줄에서 안성굴로 통하는 길이 지나는 작은 골짜기.
- 무태논 : 모래들과 서반챙이 사이의 들을 부르는 이름.
- 묵밭 : 풍실의 다른 이름. 황무지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빗성굴 : 성동리의 앞내 북쪽에 있는 마을. 과거 웅천천이 사행(蛇行)하며 범람하여 만들어 놓은 하중도에 위치한 마을이다. 모래나 자갈로 구성되어 있어 물빠짐이 좋다. 위뜸, 중뜸, 정자뜸, 아래뜸, 건너말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풍천 임 씨의 집성 마을이다.
- 배꼽바위 : 빗성굴 정자뜸에 있는 바위. 고인돌이다. 최근 보령시에서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였다.
- 배챙이 : 안성굴 서쪽에 있는 들. 옛날 배가 이곳까지 들어왔었다는 전설이 있다.
- 배챙이보 : 주산면 화평리에 있는 보. 안성굴의 배챙이들에 물을 대고, 보령화력에도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 보은사 : 성퇴산 북쪽 산록, 즉 안성굴의 남쪽에 있는 절이다. 吳冕圭가 절을 지어 조계종에 등록하였다고 한다. 조계종 소속의 승려가 거주한다.
- 불치 : 안산 꼭대기를 이르는 말.
- 불치너머 : 안산의 동쪽 사면으로 주산면 관할이다.
- 사렛논 : 모래들 남쪽의 논, 앞내의 북쪽에 있다.
- 사평들(沙坪) : 모래들의 한자식 표기.
- 산제당 : 보은사의 산신각이 있는 곳. 과거에는 마을에서 제를 지냈으나 이곳에 절이 생긴 뒤로는 절에서 산신각을 만들고 위하고 있다. 1940년대까지 마을에서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 서낭당이 : 안성굴 매봉재 남쪽 건방죽굴과 안성굴고랑을 연결하는 길가에 있었다.
- 서낭당이 : 중재의 꼭대기에 있다.
- 서반챙이 : 모래들의 무태논 동쪽에 있는 논.
- 서상굴 : 안성굴 양지뜸 마을 남쪽의 정자나무 부근을 부르는 이름.
- 성굴 : 성동리를 통틀어 부르는 순수한 우리말 이름이다. 성퇴산의 성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안성굴과 밧성굴로 나누어진다.
- 성동1리 : 1반 양지뜸, 2반 안성굴.
- 성동2리 : 1반 위뜸, 2반 솔넘어뜰, 3반 중뜸.
- 성동3리 : 1반 정자나무뜸, 2·3반 아래뜸.
- 성동천(城洞川, 성골니) : 성동리의 웅천천 <1911, 朝鮮地誌資料>
- 성퇴산 : 안성굴 남쪽에 있는 산. 산의 정상에서 안성굴 쪽으로 난 넓고 평평한 골짜기를 중심으로 석성이 있다. 고려시대 수부리 수안에 있던 남포현의 치소를 보호하던 성이다. 대창리에서는 운봉산이라고 부른다.
- 성안 : 성퇴산의 성안지역을 말한다. 산 정상의 50여 m 아래에는 아주 좋은 샘이 있다.
- 속문들보 : 밧성굴 앞내의 중뜸 앞에 있는 보.
- 솔미들 : 밧성굴 아래뜸과 건너말 사이에 있는 들.
- 쇧대배기 : 밧성굴 아래뜸 서쪽에 있는 논. 솟대가 있던 곳으로 보인다.
- 수둥다리 : 배챙이 동쪽에 있던 다리.
- 솟돌구데기 : 안성굴 서낭당이 남쪽에 있는 솟돌을 깨던 구덩이.
- 아랫뜸 : 밧성굴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
- 안산 : 안성굴 동쪽에 있는 산으로 동맥이 마을에서는 왕봉산이라 부르고 안성굴에 서는 안산이라고 부른다.
- 안성굴 : 성퇴산(운봉산) 북쪽에 있는 마을. 성퇴산은 동·서·남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북쪽인 이곳 성굴쪽으로부터 완경사를 이루어 산자락에 마을을 이루었다.
보성 오 씨의 집성촌이다.
- 안성굴고랑 : 안성굴에서 성퇴산으로 통하는 길고 평평한 골짜기. 주변에 옛 주춧돌과 도요지가 있다고 한다.
- 앞내 : 밧성굴 앞에 있는 내. 과거에는 웅천천 물의 상당부분이 이곳으로 흘러 자주 범람하였으나 현재는 제방을 쌓고 필요한 물만 흘러보낸다.
- 양지뜸 : 안성굴의 중심마을. 양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옷샘 : 큰들의 용두뿌리 동쪽에 있던 샘. 물이 차고 시원하여 옷 올린 사람이 씻으면

나왔다고 한다.

- 외성(外城) : 밧성굴의 한자 표기. 성동 2구(내성, 외성) 중 1구.
- 외성동(外城洞, 밧성골) : 밧성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외성동보(外城洞淤, 밧성골보) : 성동리 밧성굴보 <1911, 朝鮮地誌資料>
- 용두뿌리 : 성퇴산에서 서북쪽으로 내려온 산줄기의 끝. 용의 머리처럼 생겼으며 성동리 쪽을 향하였다. 주변을 하천이 침식하여 산은 낮지만(32.7m) 절벽(동쪽사면)을 이룬다. 끝의 용바위에 닭 피를 발라 기우제를 지냈다.
- 용두안 : 큰들을 부르는 이름. 큰들 서남쪽에 내민 산줄기를 용두뿌리라고 하는데, 용머리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 용두암 : 용두뿌리 끝에 있는 바위.
- 운봉산 : 성퇴산의 다른 이름. 대창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원뚝 : 밧성굴 뒷내의 제방.
- 위뜸 : 밧성굴의 동쪽 끝 마을로 안성굴과 통한다.
- 음지뜸 : 안성굴 매봉재의 북쪽 마을로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장연보 : 밧성굴 앞내의 가장 서쪽에 있던 보. 큰철다리 서쪽에 있었다.
- 정자나무 : 밧성굴 정자뜸에 있다. 수백 년 된 나무는 근래에 죽었고, 어린 정자나무를 심어 자라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 정자나무에 정월 보름과 칠월 칠석에 제를 지냈다.
- 정자뜸 : 밧성굴의 중심 마을.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
- 주막다리 : 밧성굴 아래뜸의 앞내에 있던 다리. 주민들이 응천장을 보러 다닐 때 건너다니던 다리이다. 다리 건너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중비들 : 안성굴 중비또랑과 앞내 사이에 있는 들.
- 중비또랑 : 안성굴 큰들보에서 큰들로 나가는 도랑을 부르는 이름.
- 중뜸 : 밧성굴 위뜸과 정자뜸 사이의 마을.
- 중보 : 큰들보의 다른 이름. 성동리 안들과 밧들, 대창리 한내들 1000여 마지기에 물을 댄다. 중비보라고도 한다.
- 중재 : 성동리에서 대창리로 통하는 재. 용두뿌리의 동남쪽에 있다. 높이 40여m에 이르는 낮은 고개이다.
- 지물보 : 장연보의 다른 이름.
- 지장수 : 모래들 서반창이 북쪽의 논.
- 질구데기 : 안성굴 음지뜸 서북쪽에 있는 질흙을 파던 구덩이를 부르는 이름.
- 참샘 : 정자뜸 남쪽 앞내 가에 있는 샘으로 마을 대동샘이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였다. 마을 뒤에서 모래를 채취하느라고 깊이 파 샘물도 잘 나오지 않고 시원하지도 않으나 샘은 남아있다.

- 큰들 : 가줄 서북쪽에 있는 큰 들. 밧성굴 위뜸 남쪽의 큰들보에서 물을 댄다. 1977년도에 경지정리하였다.
- 큰들보 : 밧성굴 위뜸 남쪽 앞내에 있는 보.
- 턱가랑 : 안성굴 풍실의 서남쪽. 집이 2채 있다. 밧성굴 아래뜸 주막다리와 통한다.
- 텅여뿌리 : 모래들의 서남쪽을 부르는 이름.
- 풍구재 : 안성굴 건방죽굴에서 가자울로 통하는 고개.
- 풍실 : 안성굴과 가줄 사이에 있는 해발 40여m 높이의 평평한 땅. 모두 논으로 개간하였고 북쪽은 밤나무 과수원으로 개간하였다. 이곳은 과거에 황무지로 버려져 있어서 묵밭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의 토양은 황토로 점토질이어서 보령댐의 제방 공사에 사용되었다.
- 하들 : 모래들의 서쪽 끝 부분을 부르는 이름.
- 한내고개 : 가줄과 대창리 한내 마을 사이의 고개.
- 한전보 : 배챙이보 밑에 한국전력에서 막아준 보. 성동리 모든 보의 용수원이다.
- 흙보 : 밧성굴 사렛논 앞의 앞내에 있던 보.
- 회관뜸 : 밧성굴 위뜸을 회관뜸이라고도 한다.



앞내(2005)



밧성굴 정자나무(1997)

9. 소항리(小篋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웅천면(熊川面) 지역으로서 황골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으므로 작은 황골 또는 소항동(小篋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항리 일부를 병합하여 소항리라 하였다.

- 간사지들 : 구간사지 밑에 있던 새로운 간척지이다. 이곳은 사구로 가로막히고 바닷물이 드나들던 일종의 석호였다. 처음에는 소금밭을 만들어 화염(火鹽)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천일염전을 하였고, 1960년대에는 대하양식장으로 이용하였다. 최근 일부는 논이 되었고 일부는 공군 사격 훈련장이 되었다.
- 갯골 : 냇물과 샘고개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 즉 매골의 북쪽에 있다.
- 거치랭이 : 황굴 서남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황굴에서 내려온 낮은 산줄기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강릉 최 씨가 세거하였으나 공군 사격 훈련장 관계로 모두 이주하였다.
- 곤말 : 큰황굴의 서남쪽 마을. 강릉 최 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으며 강릉 최 씨 崔光弼의 호자문이 있다가 응천읍 대천리 생갯말로 옮겼다.
- 광대골 : 장안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 논으로 이용된다.
- 구간사지 : 냇물 서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간척지이다. 옛날에 막은 간척지라는 뜻에서 구간사지라고 부른다.
- 국수댕이 : 통달산 밑 오르나무골과 수무티 사이에 있는 통달산의 북쪽 기슭.
- 굽들 : 희여물 서남쪽 산 밑에 있는 들. 들 안에 섬밭이 있다.
- 꼬부랑재 : 통달산 북쪽(오수 서오개 황굴)에서 통달산으로 오르는 고개.
- 냇물 : 통달산 서북쪽 바닷가에 있던 마을. 동쪽의 윗말과 서쪽의 아랫말로 나누어진다. 땅을 파면 옛날 염전하던 곳에서 바닷물보다도 더 짠 물이 나와 소금을 구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마을이다. 냇물이라는 이름도 짠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강릉 최 씨가 세거하였다. 공군 사격 훈련장 설치로 당진군 석문면으로 집단이주하였다.
- 당산재 : 옛 황교초등학교에서 배다리로 통하는 고개. 옛날 산제당이 있어 제를 올렸다고 한다.
- 대하양식장 : 소황리 서쪽의 간척지에 있던 대하양식장, 약 20정보. 논으로 개간됨
- 대황리(大篋里) : 큰황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도롱굴 : 옛 황교초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낮은 골짜기. 양지편 마을로 이어진다.
- 돌밭매 : 갯골과 샘고개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 동달산(東達山) : 소황리 남서쪽에 있는 산. 주민들은 통달산, 동달산, 종달산으로 부름. 봉수대가 있어 남쪽으로 비인현 칠지산, 북쪽으로 남포현 여도재 봉수에 응하였는데 뒤에 폐지되고, 한말에 포대(砲臺)를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 현재는 구덩이를 매워 묘를 만들었다.

- 동달산성(東達山城) : 동달산의 정상 남쪽에서 동서로 뻗은 성. 산을 에워싸지는 않고 동서로 직선으로 뻗었다. 고려시대 토진곶 목장성의 일부이다.
- 두문개 : 독산 쪽에서 사구가 이어지고 동달산 쪽에서 사구가 이어져 서로 만나는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제방과 수문을 설치하여 안쪽은 간척지가 되었다.
- 매골 : 냇물 윗말 위에 있는 골짜기. 꼬부랑재로 연결되기도 하고 작은재를 통하여 무성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 모산 : 숫밀강 서쪽에 있는 모래 언덕.
- 밤생이덕굴 : 장안(長安)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배다리재 : 큰황골에서 배다리로 넘어가는 고개.
- 벌떡개 : 간사지 동쪽 섬밭(해발 5.3m)에 있던 마을. 집이 3채 있었다.
- 부채앞피 : 냇물의 서쪽 바닷가에 있던 모래산으로 부채살을 펴 놓은 것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구열인 것으로 보인다.
- 부처앞 : 수무티와 장터쪽부랭이 사이에 있는 산 모퉁이.
- 불근댕이 : 장안 마을이 있는 곳을 과거에 부르던 이름. 붉은 황토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 샘고개 : 고치랭이 동쪽 황교리의 서오개 서쪽에 있는 고개.
- 선바위 : 장안여 북쪽에 있는 바위너덜에 있는 바위. 바닷가에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섬밭 : 소황리와 독산리 해안에 있는 주변보다 높아 섬처럼 생긴 지형이다. 모래 또는 실트질 토양으로 되어 있어 과거에 형성된 사구(砂丘) 또는 과거 고해수면(高海水面)의 흔적으로 보인다.
- 소황동(小篋洞) : 소황리의 한자 표기.
- 수못 : 수못. 골짜기가 사구로 막혀 만들어진 호수(석호). <1911, 朝鮮地誌資料>
- 수무티 : 동달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숫무티 : 수무티의 다른 이름.
- 숫밀강 : 수무티와 광대골 골짜기 밑에 있는 호수. 수못이라고도 함. 바다와는 모산이라고 불리는 사구(沙丘)로 막혀 있는 일종의 석호(潟湖)이다. 옛날에는 넓고 깊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 19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이 물을 냇물 쪽으로 끌어 농사짓기도 하였다. 현재도 자연 상태로는 마르지 않는다. 물이 배출되는 곳도 없어 장마철에는 양수기로 뚫어낸다. 연못이 온통 마름으로 덮여 있고 뱀장어, 잉어, 가물치, 붕어 등 온갖 민물고기가 많다고 한다.

- 아랫말 : 낫물의 서쪽 바닷가 마을.
- 안장안 : 현재의 장안 마을 앞 바다를 부르던 이름.
- 양지편 : 큰황굴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마을 앞에 있는 음지와 차별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 양지편들 : 양지편과 음지 사이에 있는 들.
- 오르나무골 : 통달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 아래에 옛 절터가 있다.
- 오수(午水) : 낫물의 한자 표기.
- 오수염전(午水鹽田) : 낫물 서쪽에 있던 염밭. 약 30정보로 1952년에 만들었다.
- 옥호리(玉湖里) : 소황리 낫물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원논들 : 낫물의 서쪽에 있는 들. 간척지가 아닌 육답(陸畝)이라는 뜻이다.
- 윗말 : 낫물의 동쪽, 동달산 서북쪽 마을.
- 음달들 : 양지편 마을 뒤쪽 회여물 남쪽에 있는 들.
- 음지 : 거치랭이 북쪽 양지편의 앞에 있는 마을. 큰황굴에서 내려온 작은 언덕의 북쪽에 있어서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장벌 : 모산으로 불리는 사구 너머의 모래 백사장.
- 장안(長安) : 황교리 광암과 석진개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공군 사격 훈련장 때문에 집단 이주한 마을. 이곳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불근댕이로 불렸고, 주민이 이주한 초기에는 부사방조제의 이름을 따 부사(扶士)라고도 불렀으나 주민의 합의로 이곳에 있던 장안여, 안장안의 이름을 따 장안이라 하고 오래도록 편안하라는 뜻에서 장안(長安)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마을 옆의 부사방조제에 관광객이 모여 들면서 관광지가 되고 있다.
- 장안여 : 소황리의 남쪽 끝에 있던 바위 너덜. 이곳에 이어 부사방조제를 축조하였다.
- 장터뽕랭이 : 공군 사격 훈련장이 생기기 전 소황리 최남단에 있던 마을. 동달산의 서쪽 바닷가 지역으로 집이 5~6가구 있었다. 마을의 서쪽은 온통 사구였고, 동쪽이 논이었다. 사구에 소나무를 심어 모래바람을 막았다. 강릉 최 씨가 세거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은 당진군 석문면으로 이주하였다.
- 절터 : 오르나무골 아래에 있다.
- 최씨효자문(崔氏孝子門) : 소황리 곤말에 있던 강릉 崔光弼의 정려. 선조 때 사람이다. 공군 사격훈련장 때문에 응천읍 대천리 생갯말로 이전하였다.
- 추모사(追慕祠) : 문헌공 尹子雲의 사우이다. 경기도 양주군에 있던 사우를 1725년 소황리 큰황굴에 옮겨 세웠으나 공군 사격 훈련장 관계로 관당리 덕메에 새로 건립하고 문헌사라 하였다.

- 큰황굴 : 황교리 배다리 서쪽 언덕너머에 있는 큰 마을이다. 무송 윤 씨가 세거하였다.
- 통달산(通達山) : 황교리, 소항리에 있는 산 <1911, 朝鮮地誌資料>
- 황교초등학교 : 소항리에 있던 초등학교이다. 소항리, 독산리, 황교리, 죽청리를 학구로 하여 1943년 4월 1일 개교하였다.
주변에 공군 사격 훈련장이 들어서 학생수가 격감하여 폐교하고 학구는 관당초등학교 학구와 통합되었다. 학교는 공군 부대가 사용한다.
- 황동(篋洞) : 황굴의 한자 표기.
- 흑금이마 : 벌떡거리와 거치랭이 사이에 있는 들.
- 회여물 : 소항리의 최북단 공동묘지 서쪽에 있는 마을. 독산리와의 경계 지역이고 독산으로 가는 길 남쪽에 있다. 무송 윤 씨가 세거한다. 근래 황교초등학교 북쪽에 공군 사격 훈련장에서 이주한 주민의 집단 취락이 들어서 큰 마을이 되었다.



통달산 봉수대지(2004)



공군사격장(2004)

10. 수부리(水芙里)

남포군(藍浦郡) 고읍면(古邑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부리(上芙里) · 하부리(下芙里) · 수안리(水岸里) 일부를 병합하였다. 수안(水岸)과 부당(芙塘)의 이름을 따 수부리라 하였다.

- 가는골 : 가름자골과 큰고랑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 가름자골 : 새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는 좁으나 안에는 넓어 여러 골짜기로 나누어진다. 입구의 좁은 목에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안에 관음사(觀音寺)가 있다.
- 가름자골저수지 : 새터 가름자골에 있는 저수지.
- 가암동(迦庵洞) : 새터 가름자골의 한자식 표기.

- 가장굴 : 새터의 조래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각시굴 : 가름자굴 저수지 밑에서 서북쪽, 즉 생여봉 쪽으로 난 골짜기.
- 건쟁이굴 : 새터 가름자굴 안에 있는 골짜기. 관음사 서북쪽에 있다. 남포면 건쟁이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다.
- 계피정굴 : 새터 가름자굴 안에 있는 골짜기. 길사난골에서 서남쪽으로 향한다.
- 고남포(古藍浦) : 수부리 소안 마을. 남포현의 치소가 있다가 조선 세종 때에 남포면 읍내리로 옮겼다. <1911, 朝鮮地誌資料>
- 고읍내 : 성동리에서 내 건너 수부리 지역을 부르는 이름. 옛날 읍내라는 뜻.
- 골들 : 새터의 가장굴 밑에 있는 들.
- 공동묘지 : 수부초등학교 뒤쪽 생여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능선에 있다.
- 관음사(冠音寺) : 새터 가름자굴 안에 있는 절.
- 구레들 : 수안과 수부초교 사이에 있는 들. 수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길사난골 : 새터 가름자굴 안에 있는 골짜기. 관음사의 서쪽에 있다. 남포면 새아니로 통하는 고개가 나 있다.
- 꼬창굴 : 수부저수지(청쟁이저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 약간의 논이 있다.
- 느레번들 : 불근댕이 마을 북쪽에 있는 번덕지로 과거에는 임야였으나 개간하여 포도 과수원을 조성하였다.
- 단원사(團圓寺) : 수부리 저수지 북쪽에 있는 절. 단원사-영수암-단원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귀부와 이수가 있어 충청남도지정 유형 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다. 1932년 옛 절터에 세웠다고 한다.
- 당산 : 불근댕이 서쪽에 있는 산 봉우리. 기우제를 지냈다. 높이 73.9m이다.
- 대숙굴 : 잔미산 남쪽 산록에 있는 골짜기. 호동박굴 동쪽에 있다. 성동리(빛성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도고통굴 : 새터 가름자굴 안에 있는 골짜기.
- 뒷들 : 불근댕이 서쪽 당산과의 사이에 있는 들.
- 두내받이 : 보습꼬지 앞쪽으로 앞내와 뒷내가 만나는 곳.
- 둥구재 : 수부리 새터 마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가름자굴의 입구에 있다.
- 뒷내 : 수안 마을 뒤쪽에 있는 내.
- 막은담 : 불근댕이 북쪽 새아니골에 있는 옛 성의 성문자리.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쌓았는데 일부의 석축만이 남아있다. 세종 이전에는 남포현의 치소가 수부리 소안(수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동리산성과 함께 치소를 보호하기 위한 성이다.
- 바른골 : 불근댕이 으댕이골 북쪽, 학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바른굴 : 새터 가름자골 안에 있는 골짜기. 관음사 북쪽에서 동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따라 성주면 개화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다.
- 보습꼬지 : 수안 서쪽 끝에 있는 들로 앞내와 뒷내가 만나는 곳에 형성되어 있다.
- 봉오재말랭이 : 잔미산 정상의 옥미봉 봉수터를 말한다. 주변의 산봉우리 중 가장 높은 416.8m이며 꼭대기에는 봉수대 유적이 남아 있다. 주변에는 신하대가 무성하게 자라 과거 봉수군의 거처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봉수대는 최근 훼손되었다.
- 부근당(富斤堂) : 불근댕이의 한자식 표기.
- 부당(芙蓉塘) : 불근댕이의 한자식 표기이다.
- 부안(芙蓉岸) : 불근댕이와 수안을 통틀어 부르는 말. 수부 2구(신기, 부안) 중 1구.
- 부엉바위 : 불근댕이 느레번들에 있는 바위.
- 불근댕이 : 수안 북쪽 수부초등학교 서쪽 마을.
- 산제당 : 수안 위뜸의 동쪽에 있었다. 기와 1간의 건물이 있었고 주변에 신수인 수백 년 된 참나무가 많이 서 있었다. 제일은 음력 선달 그믐날이었다. 생기복덕을 보아 당주를 뽑아 음식을 장만하여 세 사람 정도의 대표가 자정이 넘으면 제를 지냈다.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산제부터 지낸 셈이다. 약 1960년대까지 지냈으나 현재는 지내지 않고 산제당도 없어졌다.
- 상부리(上芙蓉里) : 새터 지역의 옛 이름. 조선 말기의 읍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1915년에 측도한 1:50000지형도에 上芙蓉里로 표기되어 있다.
- 상아봉 : 생여봉을 부르는 다른 이름. 생여봉의 생여가 좋지 않은 느낌이라 상아로 부르지 않았나 생각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도 생여봉이라고 부른다.
- 새아니고랑 : 불근댕이 북쪽의 골짜기이다. 남포면 새아니로 넘어가는 고개로 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수부리산성이 있다.
- 새아니재 : 수부리 불근댕이에서 남포면 새아니로 넘어가는 고개. 과거에는 통행이 많은 큰 고개였다. 남포현의 치소가 세종 때 수부리에서 남포면 읍내리로 옮겨진 후, 새로운 ‘안(치소)’으로 가는 고개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새터 : 수부리의 불근댕이 북동쪽 마을.
- 생여봉 : 불근댕이 북쪽 새아니고랑의 동쪽에 있는 산봉우리. 상아봉이라고도 함.
- 생이골 : 새아니골의 다른 이름.
- 서낭댕이 : 큰우리터 꼭대기에 있었다.
- 서낭안골 : 큰우리터의 남서쪽 골짜기. 서낭댕이의 안쪽 골짜기라는 뜻이다.
- 소란말 : 새터 아래뜸의 북동쪽, 청쟁이 저수지의 아래쪽 마을.
- 소마당 : 신개굴 안에 있는 평평한 곳. 옛날에 풀을 뜯기 위해 소를 많이 가져와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와우형과 관련하여 풍수설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 소안 : 수안을 노인들이 부르는 이름. 근래의 공부상에는 모두 수안으로 되어있으나 노인들은 소안이라고 한다. 옛 남포현의 치소(治所)가 이곳이었고 치소의 안이라는 의미로 부르는 이름으로 보인다. 남포현의 치소는 세종 때 남포로 옮겼다.
- 수부1리 : 1반 동구재, 2반 증뜸, 3반 아래뜸.
- 수부2리 : 1반 위뜸, 2반 저작뜸, 3반 아래뜸.
- 수부3리 : 1반 위뜸, 2반 아래뜸.
- 수부저수지 : 청갱이저수지.
- 수안(水岸) : 수부리의 남쪽 앞내와 뒷내 사이에 있는 마을. 노인들은 소안이라고 한다. 하천의 범람으로 형성된 자연제방 위에 있는 취락이다. 옛 남포현의 치소가 있던 마을이다.
- 신개굴 : 잔미산 남쪽 와우형 동쪽에 있는 넓고 평평한 골짜기. 안에 소마당이 있다. 성동리(빛성굴) 사람들은 파래굴이라고 부른다.
- 신기(新基) : 새터의 한자식 표기. 수부 2구(신기, 부안) 중 1구.
- 쪽굴 : 새터 가름자골 안에 있는 골짜기. 바른굴과 건쟁이굴의 사이에 있다. 이곳을 통하여 영기봉으로 오른다.
- 아래뜸 : 새터의 아래쪽 마을. 새터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아래뜸 : 수안의 서쪽 마을.
- 아래참새골 : 새아니고랑에서 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막은담과 윗참새골 사이이다.
- 앞내 : 수안 마을 앞에 있는 내.
- 연당논 : 수부초등학교 바로 서쪽 논. 연당(蓮堂)이 있었다고 한다.
- 영수암 : 최근 옛 이름인 단원사로 개칭되었다.
- 영기봉말랭이 : 새터 가름자골 북쪽에 있는 높은 봉우리. 옥마산~잔미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우리티 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만나는 곳이다. 높이 379.8m이다.
- 옥녀봉 : 새터 가름자골 저수지 서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
- 옥담안밭 : 수안 위뜸의 서쪽에 있는 밭.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가 무수히 출토되어 과거 남포현의 치소임을 말해준다. 마을에서는 옛 감옥자리라고 한다.
- 옥미봉(玉眉峰) : 잔미산 봉화대가 있던 곳의 한자식 표기.
- 옥미봉봉수(玉眉峰烽燧) : 비인 칠지산(漆枝山) 봉수에서 받아 보령의 조침산(助侵山) 봉수에 전하였다. 봉수대가 남아 있었는데, 최근 훼손되었다.
- 와우형(臥牛形) : 잔미산 남쪽 산록에 있는 조그만 산. 풍수적으로 보아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고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밑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기도 한다.

- 우리티 : 수부리에서 도화담으로 넘어가는 고개. 큰우리티라고도 한다. 국도 606호 도로가 지난다. 이 고개 너머에서 웅천읍 서부지역 사람들이 나무를 하였다. 이를 우리티나무 또는 먼산나무라고 하였다.
- 우이치(牛耳峙) : 우리티의 한자식 표기.
- 우치(牛峙,우리틱) : 우리티 <1911, 朝鮮地誌資料>
- 위뜸 : 수안의 동쪽 마을. 동쪽 끝에 산제당이 있었다.
- 윗참새골 : 불근댕이 새아니골 꼭대기에서 새아니재로 난 골짜기. 이 골짜기 옆을 통하여 새아니재로 오른다.
- 윗칠산이골 : 불근댕이 아래칠산이골과 큰골 사이에 있는 서쪽으로 난 골짜기.
- 으댕이골 : 불근댕이 느레번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 보령댐 수로가 통과한다.
- 은골 : 불근댕이 큰골과 잔미산 정상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은굴 : 잔미산 남쪽 탕자굴의 다른 이름으로 성동리(빛성굴)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잣들 : 수부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들.
- 정자나무 : 불근댕이 은골과 큰골사이에 옛날 절터가 있고 절터 있는 곳에 아주 오래된 정자나무가 있다. 이 정자나무에 불근댕이 주민들이 정월이면 떡을 해놓고 옷감을 걸어놓는 등 위하기도 하였다.
- 조래 : 새터의 서쪽, 생여봉 동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
- 참새고랑 : 단원사 북쪽의 골짜기. 큰고랑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청석이마 : 잔미산 남쪽 산록의 불근댕이 당산 서남쪽에서 도로 쪽으로 내민 능선.
- 청갱이 : 수부저수지 북쪽, 단원사 남쪽 평평한 땅을 말한다.
- 청갱이저수지 : 새터의 동북쪽 우리티 밑, 청갱이에 있는 저수지.
- 큰고랑 : 단원사의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
- 큰골 : 불근댕이 윗칠산이골과 은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큰양지 : 우리티 남쪽의 산사면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이름. 이곳은 예부터 오석의 산지여서 많은 구덩이가 있다.
- 큰우리티 : 보통 우리티고개라고 부르는 고개. 작은우리티 서쪽이다.
- 탕자굴 : 잔미산 남쪽 산록 대숙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 톱메고랑 : 우리티고개로 올라가는 골짜기의 왼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 서낭안골의 아래쪽 골짜기이다.
- 파래굴 : 잔미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 신개굴을 성동리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파래같은 이끼가 많이 끼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 하부리(下富里) : 불근댕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하부리(下美里) : 불근댕이의 옛 이름. 조선 말기의 읍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1915년에 측도한 1:50000 지형도에는 불근댕이 위치에 표기되어 있다.
- 하창골 : 수부저수지 동북쪽, 즉 꼬창골 위에 있는 골짜기. 약간의 논이 있다.
- 학자골 : 불근댕이 바른골과 아래칠산이골 사이에 서쪽으로 난 골짜기.
- 호랭이골 : 관음사의 서북쪽에 있는 바른골을 달리 부르는 이름.
- 황새들 : 수부저수지 서쪽 둑구재 마을의 앞에 있는 들.



옛 단원사(1960년대)



소안 산제당(1992)



옛 관음사(1960년대)



관음사 산신각의 서산대사, 사명대사 초상(2007)

11. 죽청리(竹淸里)

본래 남포군 응천면 지역으로 과거에는 청동(靑洞)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청리(大靑里) 소청리(小靑里) 장기리(場基里) 봉오리(烽伍里)와 주교리(舟橋里) 화망리(花望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죽청리라 하였다.

- 가자골 : 서남댕이 남서쪽 산을 부르는 이름.
- 갓골 : 죽청리 서남쪽 끝에 있는 작은 골짜기. 고인돌 2기가 있었는데 훼손되었다.

- 개장굴 : 독고개 마을 북쪽의 작은 골짜기.
- 광암평(廣巖坪) : 웅천읍 죽청리에서 황교리에 이르는 들. <1911, 朝鮮地誌資料>
- 구렁재 : 작은 무술에서 치안대 큰무술로 넘어가는 고개.
- 구룡재 : 장터 마을에서 구룡리 구룡으로 넘어가는 고개.
- 기현(基峴) : 장터와 봉오재, 잠나무굴을 합하여 부르는 이름. 죽청 2구(기현, 이청) 중 1구.
- 냉적굴 : 잠나무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
- 노적봉 : 작은무술과 치안대 사이에 있는 봉우리. 높이 50m이다.
- 능굴 : 죽청리의 동북쪽 골짜기. 할미재에서 남쪽으로 뻗은 작은 골짜기로 관당리 너머굴의 동남쪽에 있다. 옛날 이곳에 큰 무덤이 있었다고 전한다.
- 당산 : 큰봉오재 서북쪽 산봉우리. 태봉재의 북쪽에 있다.
- 당산재 : 봉오재에서 당산으로 오르는 고개.
- 대청동(大靑洞) : 큰무술의 한자 표기.
- 대촌말 : 작은무술과 든지미 사이의 산모퉁이. 마을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 대촌말들 : 대촌말 남서쪽 들.
- 덕산봉 : 죽청리의 서쪽 갓골과 스무챙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독고개 : 죽청리에서 구룡리로 통하는 고개. 독고개 서남쪽에 있는 마을.
- 두집매 : 무술 앞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 뒤쪽이 모두 밭이었으나 1991년 경지정리 사업으로 모두 논으로 개량되었다.
- 둔전답 : 진등 서남쪽 방죽이 있는 논. 옛날 둔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든지미 : 두집매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집이 3가구 있었고 주변이 모두 밭이었으나 앞쪽은 1991년 경지정리 때 논으로 개량되었다.
- 마차울재 : 장터에서 마차울로 통하는 고개. 꼭대기에 성황당이 있었고 토성이 지났는데, 고속도로가 통과하였다.
- 말무덤 : 장터 마을의 서쪽 도랑 주변에 말무덤이라고 전하는 무덤이 있었다.
- 무술장터 : 무술과 장터 마을을 함께 부르던 이름이다.
- 문왕굴 : 새태와 장터 사이에 있는 골짜기. 주민의 거주는 없다.
- 벼락재 : 죽청리에서 관당리 무창포로 넘어가는 고개. 벼랑고개라는 의미이다.
- 보습끄트머리 : 능굴의 서남쪽에 내민 산자락의 끝. 하천과 도로 사이에 있는 산이 마치 보습의 끝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봉오리(烽伍里) : 봉오재의 한자 표기.
- 봉오재 : 죽청리의 서북쪽 마을. 작은봉오재와 큰봉오재로 나뉜다.

- 북문재 : 죽청리에서 관당리 양알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토진곶목장성의 토성이 지나고 있다. 토성의 북문이라고 전한다.
- 삭바위 : 잠나무굴 북쪽 산기슭에 있는 바위.
- 산제바위 : 장터마을 동북쪽 산 중턱에 있는 바위. 바위 옆에 신목으로 위하던 소나무가 있다. 마을 대동에서 칠월 칠석에 산제를 지낸다. 술 과일 등 간단한 제물을 놓고 지내며 제를 마친 후에는 마을의 샘을 폼어야 행사가 끝났다.
- 새뜰 : 죽청리 가운데를 흐르던 내. 천정천이어서 독이 높았었다. 1991년 경지정리로 모두 없어졌다.
- 새태 : 작은무술 북쪽에 있는 마을.
- 샘굴 : 장터 마을의 북쪽 골짜기.
- 서낭굴 : 장터 마을의 동쪽 골짜기. 마차울재를 통하여 구룡리 마차울로 이어진다.
- 서낭댕이 : 마차울재 꼭대기에 있다. 상당부분이 훼손되었으나 아직도 남아있다. 토성의 바로 안쪽에 있었는데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되었다.
- 서낭댕이 : 죽청리와 구룡리 경계지역의 죽청리 지역에 있었다. 서낭의 뒤에는 수백 년 된 정자나무(느티나무)가 있고 느티나무 밑에 돌무더기가 있었다. 구룡리 고뿌래 사람들이 위하던 서낭이다. 근래 보령군에서 석장승을 세우고 장승공원이라고 이름 붙였으나 주민들은 그리 부르지 않는다. 과거에도 장승은 없었다.
- 선저굴 : 장터 마을과 잠나무굴 사이의 골짜기. 집은 서너 가구에 불과하다.
- 성재 : 큰무술과 마차울 사이의 고개.
- 세면장터 : 장터 마을을 과거에 부르던 이름.
- 소청동(小菁洞) : 작은무술의 한자식 표기.
- 스무챙이 : 덕산봉과 큰봉오재 사이에 있는 골짜기. 태봉재의 남동쪽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는 임시로 시체를 매장한 묘가 있었다고 전한다.
- 스승고개 : 봉오재 당산재의 아래쪽을 말함
- 안산 : 문왕굴과 장터 사이에 서쪽으로 내민 산줄기.
- 양지뜸 : 작은무술의 북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
- 영감재 : 작은무술 새태에서 구룡리 마차울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 영절미 : 장터 마을 북쪽 능선 너머, 즉 선저굴의 남쪽 산기슭을 말함.
- 옷말 : 작은무술의 북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 양지뜸이라고도 한다.
- 용굴재 : 잠나무굴과 용굴 사이에 있는 재.
- 음산뜸 : 작은무술의 남쪽 산기슭에 있는 마을.
- 이청(二菁) : 작은무술과 큰무술을 함께 부르는 이름. 죽청 2구(기현, 이청) 중 1구

- 작은매 : 진등 남쪽의 들.
- 작은무술 : 새태와 대촌말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대숙굴이라고도 불린다.
- 잠나무굴 : 선저굴과 진등 사이에 있는 마을. 마을 안에 고인돌 여러 기가 있다. 구룡리 고뿌래나 죽청리 진등 마을에서 보아 토진곶 목장성의 너머이기 때문에 성너머 마을이라는 의미인 ‘잣너머굴’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 장기리(場基里) : 장터 마을의 한자식 표기.
- 장터 : 죽청리의 중앙부에 있는 마을. 수십 기의 고인돌이 있다. 옛날 군마(軍馬)를 키우던 목장의 터라는 전설이 전한다. 토진곶 목장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점촌 : 북문재 남쪽 관당초등학교와의 사이에 있는 마을. 과거에 질그릇을 굽던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점촌 : 잠나무굴 북쪽 관당초등학교 앞이다. 현재 석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과거에 질그릇을 굽던 점이 있었다고 전한다.
- 진등 : 죽청리의 북쪽 마을. 대천, 무창포, 웅천읍 소재지로 통하는 삼거리에 있어 과거부터 주막과 정미소가 있었다. 낮고 긴 능선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청동(靑洞) : 무술의 한자식 표기. 靑이 ‘무우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 : 작은무술과 새태 사이에 내민 낮은 산줄기.
- 청룡 : 장터마을 북쪽에서 서쪽으로 내민 산 능선.
- 치안태 : 큰무술 남쪽에 있는 마을. 노적봉의 동남쪽 산기슭에 있다.
- 큰무술 : 치안태 북쪽에 있는 큰 마을.
- 큰봉오재 : 봉화대가 있던 태봉재의 동북쪽 골짜기로 봉오재의 중심 마을이다. 마을 앞에는 경주김씨 金瞻喜의 정려가 있다.
- 태봉재 : 큰봉오재의 서쪽 산이다. 조선 초기에 덕산봉수가 있던 곳이다.
- 통매 : 큰봉오재와 작은 봉오재 사이에 있는 둥그런 산.
- 헤맥이재 : 큰봉오재에서 작은 봉오재로 넘어가는 고개.



서해안고속국도 발굴유물(죽청리, 1999)



서해안고속도로 발굴유물(죽청리, 1999)

12. 평리(平里)

본래 남포군(藍浦郡) 고읍면(古邑面) 지역으로, 별판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말 또는 평리(平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안리(水岸里) 일부와 심전면(深田面)의 동막리(東幕里)를 병합하여 평리라 하고 웅천면에 편입하였다.

- 골논 : 하평의 동쪽 사기장굴 밑에 있는 들.
- 국수댕이골 : 상평소류지 서남쪽의 첫 골짜기. 골짜기의 아래에 정각정사가 있다. 이곳을 통하여 고개를 넘으면 미산면 금강암(金剛庵)에 이른다.
- 꽃집 : 양촌에 있는 집으로 꽃을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나랏독구데기 : 북판의 남쪽 앵맥이골의 아래쪽에 있던 구덩이. 옛날 나랏님(임금)의 비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캐낸 구덩이라고 전해진다. 당시에 비인현에서까지 소와 사람이 와서 12마리의 소를 채워 끌어갔다는 전설이 있다.
- 내건너 : 하평의 내 건너 동쪽에 있는 마을.
- 넷째골 : 남포 백 씨 재실 집 동쪽 골짜기. 마을 입구에서 네 번째에 있는 골짜기.
- 대문단지골 : 상평소류지 상류지역을 통틀어 말함. 음지와 같은 지역이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둘러싼 가장 높은 봉우리를 대문단지말랭이라고 한다.
- 대문단지말랭이 : 상평 대문단지골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416.2m.
- 대실말 : 하평의 위쪽에 있는 마을. 들 가운데에 있다.
- 동막리(東幕里) : 평리 동맥이 마을 <1911, 朝鮮地誌資料>
- 동막산(東幕山) : 동맥이산의 한자 표기.
- 동맥이 : 평리의 동남쪽 마을. 심전면(深田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웅천면에 속하게 되었다. 골짜기에는 남포백씨의 백이정 묘와 풍천임씨의 임향 묘가 있고, 풍천임씨와 남포백씨의 재실이 있다. 두 성씨 간에 오랫동안 산송(山訟)이 있던 곳이다.
- 동맥이산 : 하평과 동맥이 사이에 있는 산.
- 동메 : 하평 안터굴과 선저굴 사이에 있는 낮은 산.
- 동아치골 : 상평 절굴과 염라대왕고랑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뒷골 : 숫가마골 마을 위쪽에 있는 논이 많은 골짜기.
- 뒷들 : 하평의 동북쪽에 있는 들.
- 들나마골 : 상평 호령굴과 선바위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마새논들 : 조막내골 앞 양촌과 숫가마골 사이에 있는 들.

- 망배미들 : 하평의 서남쪽에 있는 넓은 들.
- 매바위 : 동매이마을 남동쪽 끝에 있는 바위. 미산 웅천 주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바위이다. 옛날에는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많이 이용되던 곳이다.
- 무지개들 : 양촌 앞 들.
- 바르메들 : 선저굴 앞에 있는 들.
- 박정자 : 하평 북판의 남쪽 앵막이골의 입구.
- 박정자보 : 하평 박정자 앞에 있는 보.
- 배지골 : 상평 동쪽의 골짜기. 앵막이골과 붓당골 사이에 있다. 주변에서 비석, 버룻 돌에 쓰이는 석재를 생산한다.
- 별말 : 평리의 순수 우리말 이름. 과거에는 별말로 불렀다고 전하나 현재 생존한 노인들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므로 아주 오래 전에 소멸된 이름으로 보인다.
- 병목안 : 용맥이 북쪽 끝에 있는 골짜기로 병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에 백이정의 묘가 있고 앞에 남포 백 씨의 재실집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 병풍산 : 상평소류지의 북쪽 사면. 경사가 급하여 병풍을 친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북판 : 배지골 서쪽에 있는 산록완사면. 평평하고 넓다. 거의 밭으로 개간되었다.
- 불치 : 왕봉산 꼭대기에 있는 고개.
- 불치너머 : 왕봉산의 동쪽 사면으로 경사가 급하다.
- 붓당골 : 상평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심의성굴과 배지골의 사이에 있다.
- 사기장굴 : 하평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박정자의 남쪽에 있다.
- 산밑논 : 쇠마당 서쪽에 있는 들.
- 산제당 : 상평저수지 바로 남쪽 정각정사 입구의 북쪽 낮은 산에 있었다.
- 삽재 : 중상굴에서 동매이로 넘어가는 고개.
- 삽재다리 : 성동리와 평리를 이어주는 다리를 주민이 부르는 이름.
- 삽재보 : 삽재 서쪽에 있는 보로 근래에 한국전력에서 막아준 보이다. 성동리에 있는 모든 보의 상수원이다.
- 상평(上平) : 평리의 동북쪽 마을. 평리 2구(상평, 하평) 중 1구.
- 선저굴 : 하평 중상굴 동북쪽 골짜기. 논과 밭이 많은 골짜기이다.
- 셋째골 : 풍천 임 씨, 남포 백 씨 재실 중간에 있는 골짜기. 입구에서 3번째 골짜기.
- 쇠마당 : 골논 남쪽에서 서쪽으로 뻗어나온 산줄기. 꼭대기는 평평하다.
- 수동다리 : 삽재다리 남쪽에 있었던 다리. 물속에 징검다리로 놓았었다.
- 수랑들 : 중뚝과 대실말 사이에 있는 들.

- 솟가마골 : 상평의 중심 마을. 마을 회관이 있다. 양촌의 동쪽 마을이다.
- 심의성굴 : 상평소류지 남쪽에서 동남 방향으로 뻗은 골짜기.
- 썰매골 : 작은우리티 고개로 오르는 길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아랫들 : 하평의 남쪽에 있는 들.
- 아래뜸 : 평리의 남쪽 마을, 즉 하평.
- 안터굴 : 선저굴 남쪽에 있는 남동쪽으로 향한 골짜기.
- 앵맥이골 : 상평 배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양지산 : 상평 장아날 등생이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256.2m이다.
- 양촌 : 평리 입구에 있는 양지바른 마을. 뒤쪽에 독립유공자 김광제의 묘가 있다.
- 엽라대왕고랑 : 상평 선바위골과 동아치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왕봉산 : 삼재 남쪽에 있는 경사가 급한 산. 주산면과 웅천읍의 경계를 이룬다.
- 원뚝 : 큰내에 쌓은 높은 제방.
- 위뜸 : 평리의 동북쪽 마을. 상평. 과거에는 상평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 음지 : 상평소류지 상류지역. 큰양지와 비교하여 음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 웅암(鷹岩) : 매바위의 한자 표기.
- 작대알고지 : 상평 양지산 북쪽 산봉우리. 276.5m이다.
- 작은우리티 : 상평에서 성주면 개화리로 넘어가는 고개. 예부터 개화리 쪽에서 웅천장에 가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넘어 다녔다.
- 장번데기 : 상평소류지 서남쪽에 펼쳐진 산록완사면. 낮고 평평하여 밭으로 개간된 곳이 많다.
- 장아날등생이 : 상평 큰양지와 음지의 경계가되는 날카로운 산능선. 밑에 상평소류지가 있다.
- 재드랭이말랭이 : 상평 동아치굴과 절굴 사이의 능선으로 오르는 산꼭대기. 이 고개를 넘어가면 미산면 금감이다.
- 잣논골 : 솟가마골 북쪽의 골짜기로 뒷골의 동쪽에 있다.
- 잣들 : 하평 테메뿌리 안쪽에 있는 들.
- 절굴 : 상평 동아치굴과 국수댕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
- 절굴앞 : 상평소류지 위쪽(동쪽)에 있는 논.
- 정각정사 : 상평소류지 서남쪽 국수댕이골에 있는 절로, 범화종에 속한 절이다.
- 조막내골 : 양촌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중뜸 : 양촌 남쪽의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

- 중상굴 : 하평의 남쪽 큰내 주변에 있는 마을. 삼재 다리로 성동리와 통한다.
- 청애개울 : 선저굴에서 발원하여 중상굴 서북쪽에서 큰내로 들어가는 개울.
- 큰양지 : 상평의 북쪽 산사면을 부르는 이름. 수부리 쪽까지 모두 큰양지라고 부른다. 예부터 烏石을 캐던 곳이다.
- 터굴너머 : 선저굴 아래쪽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
- 테피뿌리 : 하평 남쪽에 서남쪽으로 내민 산줄기의 끝. 정상 부분은 36.3m이다.
- 하평(下平) : 평리 아래쪽의 중심 마을. 대섯말의 아래쪽에 하천을 따라 들어서 있다. 평리 2구(상평, 하평) 중 1구.
- 호령굴 : 상평 장아날등생이 동쪽 골짜기. 양지산의 남쪽에 있다.



오석광산(2007)



풍천임씨 재실(2007)



수자원공사 정수장(2006)



남포백씨 재실(2007)

13. 황교리(篁橋里)

본래 남포군 웅천면(熊川面)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광암리(廣岩里)와 대황리(大篁里), 소황리(小篁里), 주교리(舟橋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대황(大篁)과 주교(舟橋)의 이름을 따서 황교리라 하였다.

- 가는굴 : 석진개에서 노천리로 넘어가는 원전재가 있는 골짜기.
- 간사지 : 석진개 남쪽에 있는 간척지로 제방으로 보아 몇 차례 확장되었다.
- 과녀 : 황교리의 남쪽 끝 즉 과녀쪽뿌리 끝에 있는 바위 너덜. 주산면 증산리 쇠섬 맞은쪽에 있다.
- 과녀쪽뿌리 : 황교리 남쪽 끝 구진에서 과녀로 향한 뽕쪽한 지형.
- 광암 : 석진개의 북쪽 마을. 장수 황 씨가 보령 지역에 들어와 최초로 정착한 마을 이고 그 후손들이 최근까지 집성촌을 이루고 거주하였다. 1993년 공군 사격 훈련장 때문에 소황리 부사 방조제 입구 장안마을로 집단 이주하였다. 이곳에는 장수 황 씨인 黃廷直과 그의 손자 黃有業의 효자문이 있었는데 1993년 대창리 절굴로 옮겨 세웠다.
- 광암들 : 광암 마을 앞쪽에 있는 들.
- 광암보(廣巖洑) : 황교리 광암마을에 있던 보. <1911, 朝鮮地誌資料>
- 구진(舊鎭) : 황교리의 남쪽 끝에 있는 옛 수군 기지. 충청수영에 속한 마량진(馬梁鎭)이 있어서 중종 5년(1510)에 둘레 1271자 높이 9자의 돌 성을 쌓았는데 효종 때 선박의 내왕이 불편하다고 하여, 비인(현 서천군 서면 마량)으로 옮겼다. 장수 황 씨가 몇 가구 거주한다.
- 넓은들 : 광암 마을 앞에 있는 들.
- 넓은바위 : 광암 마을 보두막재 길 위쪽 밭에 있던 바위. 바위가 넓어 넓은바위로 불렸으나 일제시대에 밭을 메워 땅속에 묻혔다.
- 넓은새들 : 무성끝 마을 동쪽에 있는 들.
- 당산재 : 배다리와 명박굴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 대산(大山) : 서오개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 큰메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 대장이 나서 대산이라고 부른다고도 한다. 큰메의 한자식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 돌생이 : 부주굴 동쪽에 있는 석성. 고려시대의 토진곳 목장성이다.
- 동달산 : 황교리의 서쪽 소황리와의 경계가 되는 산. 과거에 봉수대가 있었다.
- 마전모탱이 : 구진과 광암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석진개 간척지의 끝에 있다. 이곳에 배를 대어 조그만 포구 역할을 하였다.
- 매봉재 : 광암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 석성이 지나고 있으며 노천리와의 경계이다.
- 명박굴 : 옛 황교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마을. 소황리 죽청리와 경계한다.
- 무성끝 : 통달산 동쪽 석진개 서쪽에 있는 마을.
- 배다리 : 서오개 북쪽에 있는 소황리와 경계를 이루는 마을. 공군 사격훈련장 관계로 모두 이주하였다.

- 백장굴 : 부주굴 남쪽에서 동쪽으로 뺀 골짜기. 사장굴이라고도 한다.
- 뱃마티 : 마전모탕이 앞. 과거 배를 대던 곳. 부사방조제 건설로 육지화되었다.
- 보두막재 : 광암과 부주굴 사이에 있는 낮은 언덕. 모두 밭으로 개간되었다.
- 부영배상봉 : 석진개 마을 동남쪽 산꼭대기. 노천리와 의 경계를 이룬다.
- 부주굴 : 황교리의 동쪽 죽청리와 노천리의 경계를 이루는 마을. 경주 김씨가 집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공군 사격훈련장 관계로 모두 이주하였다.
- 사장굴 : 부주굴 남쪽에 동쪽으로 뺀 골짜기. 백장굴이라고도 한다.
- 서오개 : 배다리 남쪽에 있는 마을. 동달산의 북쪽 끝 지역이다. 소황리와 의 접경이 되고 광주 안 씨와 무송 윤 씨가 집성을 이루었었다. 공군 사격훈련장 때문에 모두 이주하였다.
- 서현(西峴) : 서오개의 한자 표기.
- 석진개 : 광암과 구진 사이에 있는 마을. 간사지의 북쪽인데 광암 마을과는 성(城)으로 구분하였다. 간척농지를 제외하면 주변이 모두 밭으로 되어있다. 장수 황 씨의 집성 마을이었으나 공군 사격훈련장의 피해가 예상되어 1993년에 소황리 부사방조제 입구 장안 마을로 집단 이주하였다.
- 술둑이마 : 동달산 북쪽 끝. 잔잔골의 입구이다. 솥돌이 산출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먼 지역에서도 이곳에 와 솥돌을 캐가곤 하였다. 보령 지방에서는 솥돌을 보통 ‘술둑’이라고 부른다.
- 아랫궁맹이 : 황교리의 남서쪽 노천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 산줄기의 끝으로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부터 송어 낚시질을 많이 하던 곳이다. 앞의 갯벌에는 쪽(미끼로 사용)과 참조개(백합)가 많이 나왔다.
- 아랫들 : 무성끝 동남쪽에 있는 들. 아래쪽은 간척지인데 1915년에 측도한 지형도에 현재 위치에 제방이 축조되고 그 안이 모두 논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 이전에 축조된 간척지로 보인다. 1991년에 경지정리되었다.
- 원전재 : 석진개에서 노천리 가라티로 넘어가는 고개. 노천리 쪽에서는 경사가 심하다. 과거 웅천장을 보던 장꾼,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던 고개이다. 버스 교통이 좋아진 후로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
- 윗들 : 무성끝 마을 북쪽에 있는 들.
- 작은재 : 배다리에서 서오개로 넘어오는 재.
- 잔잔골 : 통달산 북쪽 끝, 서오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 공군 사격훈련장 때문에 주민은 모두 이주하였다.
- 장벌 : 무성끝 남쪽에 있는 바닷가 모래밭. 현재는 부사방조제의 축조로 육지가

되었지만 과거 앞바다에는 수많은 참조개(백합)가 있어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었다.

- 주교(舟橋) : 배다리의 한자 표기.
- 주현(舟峴) : 배다리와 서오개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
- 청석모래이 : 광암 서쪽에 있는 낮은 언덕. 청석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 칼바위 : 구진 서쪽, 무성끝의 동남쪽에서 바다로 뻗은 돌출부에 있는 바위.
- 큰메 : 서오개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
- 통달산(通達山) : 소황리와 경계하는 높은 산. 꼭대기가 봉수대지이다.
- 평전 : 석진개 마을 서쪽에 있던 넓고 평평한 지역. 모두 밭으로 이용되었다.
- 황굴재 : 배다리에서 큰황굴로 넘어가는 고개. 큰황굴, 배다리, 옛 황교초등학교, 서오개 방향으로 길이 뚫려 4거리가 되었으나 공군사격장 관계로 모두 수용되었다.



토진곶 목장성(2000)



구마랑진성 동문(1999)

도움말 주신 분(1996년 현재)

김내경(74)	응천읍	관당리	711	오현규(65)	응천읍	성동리	산4
김경환(65)	응천읍	관당리	584	오문규(72)	영등포	여의도동	시범A A 17-121
백남신(63)	응천읍	구룡리	542	최종수(72)	응천읍	소황리	477-8
백홍균(77)	응천읍	구룡리	590	최영규(69)	응천읍	소황리	129
오성희(64)	응천읍	노천리	199	오항규(72)	응천읍	수부리	799
심상봉(62)	응천읍	노천리	259-4	신부섭(48)	응천읍	수부리	599-1
김정환(62)	응천읍	노천리	445	조동규(48)	응천읍	수부리	358
황영주(82)	응천읍	대창리		김동기(54)	응천읍	죽청리	371
장일순(64)	응천읍	대창리	64	김관원(69)	응천읍	죽청리	244
황돈연	응천읍	대창리	절굴	오종직(64)	응천읍	평리	54
김동우(67)	응천읍	독산리	197	오복규(66)	응천읍	평리	402
김종일(53)	응천읍	독산리	50	김기춘(50)	응천읍	평리	114
김종복(80)	응천읍	독산리	350	오종순(47)	응천읍	평리	367-1
오중학(44)	응천읍	성동리	814	권기석(51)	응천읍	평리	593